

선생님,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까?

미국 인디애나 주 제퍼슨빌
62-1230E

1 네빌형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중한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 다시금 우리 하나님, 주의 예배에 돌아오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네빌형제가 마이크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게, 이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겁니다.”—주] 이 마이크가... 이 마이크가요. 네,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아침에 너무나 오래동안 설교를 해서, 오늘 밤에는 정말로 빨리 끝내야 할 것같은 생각이 드는군요. 세상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내내 서 계셔서, 오늘 밤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꼭 잤군요. 그러므로, 오래지 않아서 여러분이 앉으실 자리가 마련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교회가 빨리 공사를 끝내는 대로. 오래 안 갑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 너무나 오래 동안 설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내일 밤에는, 우리는 한동안 머무를 작정입니다. 내일 밤, 여러분 중에 내일 밤에 오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물론, 우리는 주 안에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되길 기대합니다. 내일 밤에는 여기에 훌륭한 분들이 몇 분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는 시간을... [브래넬형제의 동생, 에드가 브래넬이 말한다, “오, 형, 기다려 보세요! 형에게 물어보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내가 그 말을 전하는 걸 잊어 버렸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형은 예배를 마치면 언제나 급히 나간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내일은 형이 원할 때까지 있어도 돼요, 일곱 시부터 열두 시까지, 형이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자, 여기 있는 청중들이 나더러 형에게 물어보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그럴 수 없다면, 지금 청중에게 설명을 하세요.”—주] 내일 밤에는 자정에 성찬을 떼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는 걸 좋아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야단 법석을 떨고 총을 쏘고, 술을 마시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고개를 숙이고 [테이프에 공백 있음—주] 성찬을 나누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서원을 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밤 여기에는 훌륭한 연설가들이 몇 분 오실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훌륭하고...조지아주에서 오신 형제님, 파머형제님이 오실 것이고, 훌륭한 연설가입니다. 주니어 잭슨형제님도 내일 밤 여기로 오실 것입니다;빌러형제님과, 네빌형제님도. 오, 세상에, 세상에! 계속 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실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들, 윌버 칼린스형제님도 오시고, 우리에게 너무도 훌륭한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그들 형제님들이 모두 다 오실 겁니다. 어쩌면 다른 분들도 들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밤은 아주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 자, 아내가, “이 말은 하지 마세요,” 하고 말했지만, 그래도 말해야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임파이어(심판관)라고 말하지 않고, 임파이어(제국)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브래넬형제와 회중이 같이 웃는다—주]

빌리가, 뒤에 앉아 있다가, “또 그러시네.”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국, 그는 제국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심판관을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그 네델란드 사람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죠.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듣지 말고, 내가 의미하는 것을 알아 주세요.” 저는 말하길,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을 들었으니까, 사람들은 내 말을 이해할거야.”

아시겠지만, 올 해로 약... 올해로 제가 이 설교단 뒤에 선 지가 삼십 년이 됩니다. 삼십 년을 이 성막 안에서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저를 알만큼 알아야만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 세상에! 제가 받은 교육은 정말로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제가 말을 잘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께 진실한 소리를 외칩니다.

3 그런데, 형제님, 저는 그 분이 람사 박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람사 바이블 번역, 말하길... 한 번은 제가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거기에 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돌아와서는 우림과 돔뎀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에는 저 빛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길, “오늘날 이 사람들이 가진 문제가 뭐니까?” 그래서저는 말하길... 그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번역자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번역자들은 상류층의 이디시어(독일어.히브리어 등의 혼성 언어)로 번역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민층이 쓰는 말로 말씀하셨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요.”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성경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은 그들이 사용하는 말로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4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자, 저는 여자분들이 서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 여자애들이나 소년들, 부인들, 기타 등등, 어린 아이들까지 벽 주위에 서 있는 것을 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남자들이 서 있는 것도 보기에 안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은 좌석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다음에 집회를 열게 되면, 이 번 주 후에, 이 다음 번에는...

아시죠, 다음 것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일곱 인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들어와 앉을 수 있도록, 교회 공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그 일곱 인에 대해서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재봉헌식을 드릴 것입니다. 어쩌면 한두 주, 아니면 삼주를 내리 집회로 잡아서, 일곱 인을 위한 시간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시간에, 주 안에서 좋은 시간을 갖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도시에 사시지 않는 여러분들 모두, 우리는 여러분에게 카드와 그런 것들을 다 우송해 드려서, 미리, 한 일이 주 전에,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빌리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건축업자는 이월 십 일에 공사를 마친다고 했습니다. 어, 그가 십 일에 끝낸다면, 우리는 십 오 일쯤에 시작하면 되겠군요. 그러므로, 공사가 완료되자마자, 우리 곧바로 시작하기로 합시다.

5 연로하신 키드자매님이 얼마 전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녀는 울음 섞인 음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하길, “브래넬형제, 우리는 그 낡은 차에 시동을 걸려고 무척 애를 써 봤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녀는 말하길, “시동이 걸리도록기도 좀 해 줘요, 그러면 내일 내가 가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말하길, “내가 잘 곳을 찾을 수 있을지?”

저는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키드자매님, 우리가 방을 하나 마련해 두겠어요, 자매님이 끝내고...”

당신은 말하길,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축복하시길.” 말하길, “그런데, 형제님, 열 두 시까지 예배를 드릴거라면,” 말하길, “열두 시에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자매님과 키드형제님은 다 여든 다섯 쯤 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역을 맡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녹음기를 가지고 오셔서, 제 설교를 녹음하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 설교 테이프를 틀어 줍니다. 자, 그건 포기하는게 아닙니다! 그건 은퇴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죽을 때에 검을 들고 죽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아.

6 그리고나서, 그녀는 말하길, “아시죠, 내가 열두 시에 고속도로엘 나간다면,” 그녀는 말하길, “밤 열두시가 지나서, 집으로 가려고 하면, 그 술취한 마귀들이 모두,” 그녀는 말하길, “운전을 하고 있어요,” 말하길, “술을 마시고선, 난폭운전을 해대죠.” 그녀는 말하길, “그 마귀들이 득실대는 걸 보면,” 그녀는 말하길, “무척 겁이 납니다.”

팻형제님, 자매님은 정말로 재미있는 분입니다. 몇 분이나 키드자매님을 아시죠? [회중이 “아멘”한다—주] 자매님은 너무나도... 정말로 성도다운 모습을 지니신 분입니다!

한 번 생각해 보았는데, 제가 태어나기도 전 여러 해 전에(지금 저는 나이가 지긋합니다), 그녀는 저 위 산에서 사셨습니다, 자매님과 키드형제님이. 자매님은 그 날 밤 남편이 어딘가에 가서 설교하도록 보내느라고, 심오 내지 이십 센트를 벌려고 하루 종일 빨래판에서 빨래를 하셨습니다. 저 위에 켄터키 주에 있는 석탄 광산에서, 거기서는 여러분은...누군가가 소총을 들고 호위를 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 산에 올라가 설교를 하려면 말입니다. 오, 세상에! 그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상을 받으려고 싸우고 있고,

피비린내 나는 바다를 헤치고 항해할 동안에,

내가 편안히 꽃 침대에 누워서

천국 집으로 가야만 할까,

다스리려면 나도 싸워야 하리;

주여, 나에게 용기를 주소서!

그게, 저는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바랍니다. 그게 오늘밤에 제가 원하는 겁니다.

7 자, 이제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제가, “애기를 봉헌하는 걸 잊지 마세요.”라고 말한다—주] 아, 그렇군요. 제가 그만...죄송합니다. 오늘 아침, 여기에 애기가 있는 한 조그마한 자매님이 계셨는데, 아이를 봉헌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꼭 오늘 밤에 봉헌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내일 밤, 우리는 애기 봉헌을 하도록 할 겁니다, 병고침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만일 그 조그만 자매님이 여기 계시고, 어린 애기를 데리고 계시다면.

저는 아주 멀리서 오신 몇 분이 지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오늘 아침에 개인 면담을 하려고, 무슨 일 때문인지, 여기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 오늘 아침에 면담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리는 그들이 오늘 밤까지 기다리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빌리는 오늘 밤, 어디서도 그분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자매님, 당신이 여기 계시다면, 저는 저 뒤에서 한참을 기다리면서, 빌리가 그 부인을 찾을 수 있을 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 다른 주에서 오신 분으로개인 면담을 가졌던 분은 두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러분을 못 만났다면, 저는 여러분을 되도록 빨리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일 밤, 들어오실 동안에.

8 자, 제 생각으로는, 파란색 잠바를 입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이 분이 그 여자분입니까? “잠바”? 미다, 여보, 난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게 무엇이든간에. 그건 치마같은 걸로 보이는데...잠바, 몇 분이나 잠바가 뭔지 아십니까? 왜, 정말입니다. 그건 제가 보건대는, 잘 알고 있는 작업복 겹옷입니다. 그래서—그래서...

정말, 달라스의 어린 아이군요. 세상에, 참 예뻐니다. 형제님, 여기로 올라오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브래넬형제가 마이크에서 멀어져 강단 한 쪽으로 간다—주]

어, 어, 거기 달아 준 그 조그마한 리본이 맘에 듭니다. 애기 이름이 뭐죠? [애기 아버지가 “리베카 린”이라고 말한다—주] 리베카 린, 리-인. 그럼 당신의 성은 뭐죠? 스테이튼. 리베카 린 스테이튼. 맞습니까? 애기를 안아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는 그런 애를 내준다는게 좀 힘든다는 걸 압니다. 참 귀엽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쁜 여자 아이가 있습니다. 리베카 린 스테이튼입니다. 이 가정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조그마한, 젊은 부인과 그녀의 남편은, 최근에 둘 다 구원을 받았고, 주님을 아는 지식 안으로 들어 왔습니다. 이제, 그들의 결합에서, 하나님은 이 예쁘고 작은 리베카를 주셨고, 그들은 그 아이를주님께로 데리고 나옵니다.

9 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무한한...유아 세례라고 부르죠, 감리교회와 많은 다른 교회들에서, 그들은 아기들에게 물을 뿌립니다. 자, 저에게로 말한다면, 그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성경이 하라고 말하는 것에 붙어있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에서, 한 번도 유아에게 세례를 준대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역사상 어디에서도, 우리가 알기로, 복음이 전해진 후로... 초기 카톨릭 교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애기가 “으앙!”하고 운다—주] 그래서, 그렇게 “아멘”하는 거란다...?...그래서, 아시겠죠, 여러분은 옆에 통역을 두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예수께 자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계속하는 겁니다.

10 자 다 같이 머리를 숙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밤 이 젊은 부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하도록 그들에게 맡겨주신, 이 사랑스러운 어린 리베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밤 주님께 바치려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애의 어머니는제 팔에 그 아이를 주었고, 저는 주님의 팔에, 이 작은 리베카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와 함께 하시고 이 아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부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모두 충성되게 살고, 장수하게 하시고, 가능하다면, 주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하옵소서. 이 아이가 주님을 알면서 성장하게 하소서. 그래서 내일이 있다면, 이 아이로 당신의 위대한 증인이 되게 하소서. 주님, 들어 주옵소서.

이제, 당신이 여기 땅에 계셨다면, 이 여자와 남자들은 당신께 그들의 자녀를 데리고 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당신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께 이 아이를 드리오니, 평생 당신의 나라에서 섬기게 하시기를 당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멘.

어린 리베카, 하나님께서 네게 복 내리시기를 바란다! 얼마나 귀여운 아이입니까! 하나님께서 두 분 모두를 축복하시고, 애기도 축복하시기를, 두 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하게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11 몇 발자국만 다가 오세요. 제가 그 아이를 안을만큼 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튼튼한 남자애군요. 이름이 뭐죠? [아이 엄마가, "스탠리 빅터"라고 말한다—주] 스탠... ["스탠리."] 스탠리 빅터... ["클리브랜드"] 클리브랜드. 클리브랜드, 클리브랜드, 어린 스탠리.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얼마나 잘생긴 아이입니까! "어, 내 생각엔, 올라 가야지." [그 어린 소년이 일어서다.] "일어서야겠다." 정말 건강한 소년입니다. 오, ...?... 우리는 이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이렇게 합니다, 아시죠, 그 일에는 아무 형식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로 귀여운 녀석입니다. 이 애의 성을 잊어버렸습니다. 성을 똑바로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클리브랜드"] 클리브랜드. 좋습니다.

12 이제 다같이 머리를 숙입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부부는 주 예수께 봉헌하려고, 이 아이를, 어린 스탠리 클리브랜드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계신 교회의 목사님과 제가 함께 주님의 일에 한 마음으로 서서, 당신께 이 아이의 평생 섬김의 삶을 위해서 이 아이를 바칩니다. 당신이 그의 부모에게 그 아이를 주셨고, 이제 그들은 그 아이를 제게 주고, 제 팔에; 저는 그 아이를 제 팔에서 주님의 팔에 드립니다. 하나님, 그의 부모를 축복하소서. 그 어린 소년을 축복하소서, 그들이 모두 주님을 위해 섬기면서 행복하게 장수하게 하소서. 그아가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게 하시고, 평생토록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제, 그들이 자녀들을 당신께 데리고 온 것은 당신이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이에게손을 얹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그가 당신을 섬기면서 건강하고 힘있게 행복하고 장수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너, 어린 스탠리를 축복하시기를 바란다. 두 분은 정말로 귀여운 아들을 두셨습니다.

13 이제 저는 어린 아이들과 심대 청소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게 어렵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은 다리에 쥐가 나기 때문에,아주 오래는 조용히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밤 전에는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전에는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생각지도 않았던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그 시간을 끼어넣길 원치 않았던 겁니다, 저는 제 절대자에 대해서 얘기를 결코 다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다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못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오늘밤, 저는 제가 모르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가 자기도 모르는 어떤 일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가 이해하도록,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만한 어떤 것을 뒤에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14 그런데, 이 테이프는, 저는 저 사람들이 설교를 테이프에 녹음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테이프를 가지게 되면, 누구든지 이 테이프를 들으시는 분은, 명심하십시오, 뭔가 여러분에게 아리송하다면, 테이프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면, 그 말을 하지 마십시오. 테이프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반대되는 어떤 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뱀의 씨에 대해 편지를 써 보내, 제가 이러 이런 말을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가서 그 테이프를 가져다가 뜯어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사람들은 오판합니다.

아시죠, 한 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과 함께, 해변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르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무슨 상관이나냐?"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볼 때까지 살리라"는 말이 나왔더라."

그리고 성경은 말하길,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아시죠, 예수님은—예수님은 결코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가 올 때까지 머물리라도 너희에게 무슨 상관이나냐?" 예수님은 결코 요한이 머물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죠, 오해하는 일은 무척 쉽습니다.

15 그런데, 저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나무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과 동행하던 사도들도,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명확하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말하길, "보라, 이제야 우리가 이해하도다. 이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당신에게 뭔가를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데,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믿느냐?" 아시겠죠?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너희가 마...너희가 마침내 깨달았느냐, 아시겠죠, 너희가 믿느냐?"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좀 여러분에게 아리송하다면, 테이프를 다시 틀어 보십시오. 그리고 주의깊게 들으십시오.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시라고 확신합니다.

16 그런데, 어린이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멘"을 잠시 멈춰준다면, 어린이들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테이프를 가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꼭 그것을 이해하시길 원합니다. 자 다같이 그것을 알아 봅시다, 왜냐, 저는 삼십 오 분내지 사십 분간, 우리가 아는 대로 경건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제게는 굉장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인가가 일어났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고 있는 시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는 지금까지 제 사역에 있어서, 극도로 좁은 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에 다가가기 전에, 다같이 머리를 숙입니다.

17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 전에, 저는 가정(Presuming)이라는 주제로 설교했었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권위 없이 모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밤, 주님, 저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석하기 위해서 모험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 환상을받지 않고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제지되어야 할 때가 되면, 저를 제지하소서; 주님, 저의 입을 막아 주소서.

당신은 다니엘과 함께 굴 속에 있던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해치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제가 뭔가를 잘못해석하려고 한다면, 주님께서서는 아직도 입을 막을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게 진리라면, 주님, 그것을 축복하시고, 그것을 내보내시옵소서. 당신은 상황들을 아시고,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설교단에서, 이것들을 해석하려고, 온 겁니다. 저는 당신께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8 이 작은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여기 이 지붕 밑으로 오시는 이 우리들, 여기 도시에서 우리와 함께 순례하시는, 여러 주에서 오신 분들. 오, 저물녘의 그늘이 내릴 때, 우리는 올 수 있는 장소를 가지고 있음에 너무도 기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혼잡한 가운데 있고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 우리는 기쁩니다, "여호와와 이름은 건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많은 말씀들이 아니라, 하나의 계시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저물녘의 빛들이 해가 질 무렵 올 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해 질 무렵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당신께 정말로 엄숙하게,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시대들을 통해서, 저는 당신께서 주신 환상들을 감사드립니다, 그 환상들은 전부 다 완벽한 것이었고, 모든 해몽도 정확하게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오로지 당신일 수 밖에 없음을 압니다, 주님;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수 밖에 없고, 모두 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우리 안에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인간으로서, 그와 같은 것을 받으시고, 그들을 말씀의 물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렇게 손을 펼치사, 그 사람이 자기들의 생각을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만드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심으로, 그것이 들어와서 말하고 성막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19 이제 우리는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는 오늘 밤, 당신의 이름으로 이 작은 우리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목사이신, 하나님의 용감한 종, 네빌제님을 축복합니다. 집사들과 이사들과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지체들, 이곳에 있는 지체들과 전 세계에 있는 지체들 모두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이 어둡고, 음침하고, 끔찍스런 그늘이 기독교 전체에 덮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시간이 가까와 오고 있는 것을 압니다. 휴거가 일어나고, 교회는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계속 행군하게 하소서. 주님,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것들을 감당하며 전진하여 나갈 때,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을 당신의 말씀과 함께 당신께 맡기기 때문입니다. 아멘.

20 이제, 여러분이 연필과 종이를 가지고 계시면,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적게 하고 싶습니다...아니면 여러분이 적고 싶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십시오. 그리고, 테이프로 들고 계신 분들도, 언제든지, 성경 구절을 적으시길 원한다면, 왜냐하면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성경구절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밤 본문을 읽고 싶습니다, 아니 성경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에서. 저는 이것이 책에 적힌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믿습니다. 이 계시와 다른 계시가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려야하겠다고 믿습니다. 이 계시록과 맞아 들어가지 않고, 이 계시록이 빛을 내게 하지 않을 계시라면, 그건 잘못된 계시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성경적인 계시여야 합니다.

21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10장에서, 저는 처음 몇 구절을, 처음 일곱 구절, 1절로 7절을 읽고 싶습니다. 이제,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절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또 보니 함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 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퍼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 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리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Eng.p. 10)

일곱 우리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 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리라

오늘밤, 제가 그것을 본문이라고 불러야 한다면, 제가 전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선생님, 이것이 종말의 징조입니까?

22 우리는 모두 우리가 교회 쪽으로는 영광스러운 때에 살고 있지만, 불신자 쪽으로 볼 때는 끔찍한 때에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 모든 시대 중에, 가장 위험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사도도, 한 번도, 어떤 때에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와 같은 때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종말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지표면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신문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손글씨를 읽을 수만 있다면, 지금은 끝입니다. 선지자들은 손글씨가 나라를 위해서 벽에 나타났었던 때에 살고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시간을 위해서 손글씨가 벽에 쓰여져 있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땅과 모든 것이, 때가 끝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을 알아 보기 위해서, 성경구절들을 찾아봐야만 합니다.

23 언제나,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는 성경 말씀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게 그런 식이 될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어떤 것을 말했을 때, 거기에는 언제나, 어딘가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 말씀과 함께 머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환상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의 환상이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그의 환상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방법입니다.

저 뒤에 계시는 분들, 제 말이 잘 들립니까? [브래넌형제가 말을 멈춘다—주] 저는 정말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성막이 제 첫번째 교회였음을 알고, 그것은 제게는 커다란 특권이 되어왔습니다. 그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비록 제가...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계시면 저는 백살이 될 때까지 살게 될 겁니다. 저는 제가 저기 모퉁이에서, 초석을 놓던 날을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대해서, 제게 주신 환상은. 여러분 모두 그 환상을 기억하시죠. 그것은 책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글자 한 자 한 자 정말로 성취되었습니다, 한 자도 틀리지 않고.

24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살아오는 동안 말씀하신 것 가운데, 제가 사람들에게 말한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꿈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사, 사람들을 위해서 그 꿈을 해몽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꿈과 문제들을 가지고 왔어도, 저는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는 어떤 술수를 소개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직하려고 애썼고, 여러분에게 진리인 것을 말하려고 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게 오면, 그 때 저는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반대하는 말을 하고자 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그것은 말씀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25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엘리야의 시대에 문둥병자가 많았지만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도다.” 엘리야가 살았던 팔십년이나 더 되는 많은 세월 동안, 한 사람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던 겁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과부가 많이 있었지만, 그는 오직 한 사람에게만 보냄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계시하시지 않은 많은 일들도 봅니다. 어떤 종도 자기 주인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누구와도 자기 영광을 나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종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지점에 이르면,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거두시고 다른 곳으로나 다른 어떤 것으로 옮기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26 자, 그 환상들과 해석들, 저는 제가 정확하게 환상을 통해,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볼 때까지는 해몽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이 제게 여러분이 꿈의 내용을 얘기하고, 전부는 다 말하지 않았었던 것을 아실 겁니다. 제가 그 꿈이제게 돌아오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몸을 돌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꿈의 이만큼은 빼놓았다고 말했고, 여러분이 뻔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해 줍니다. 여러분 그게 맞다는 걸 아시죠. 그게 맞다면, “아멘”하고 말해보십시오, 여러분 남자분들. [많은남자분들이, “아멘.”한다—주] 여러분이 제게 말하지 않은 내용들. 그러므로, 아시다시피, 만일 그...느부갓네살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내가 꿈의 내용을 말할 수가 없다면, 그럼 어떻게 내가 너희가 그 해몽을 할 수 있는지 알겠느냐?”

하지만 이런 모든 인상들,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주께서 가라사대입니다”라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안됩니다.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해답을 받아야만 합니다. 인상이 아니고, 감흥이 아니고, 아무리 그게 고동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건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께서 가라사대”를 말할 때, 그것은 여러분이 말하는게 아닙니다. 강단에서는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실패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께서 가라사대는 완벽한 말입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게 주께서 가라사대인 이상, 그건 틀릴 수가 없습니다.

27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명성이나 헛된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고, 그리스도인이자 마땅

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말하지만, 하나님은 절 인도하셨던 분이십니다.

많은 일들을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는 이런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아멘”하고 말하도록 한 이유는, 제게 꿈을 얘기하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이 뻔 내용을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테이프에 녹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아멘” 소리를 들을 때, 그들은 거기에 이 사역 하에 앉아 있는, 음성들이 있고, 어떤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보다야니 어떤 잘못된 것에 “아멘”이라고 말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은 “그렇게 될지어다”는 뜻입니다. 아멘은 시인하는 말입니다.

28 자, 제가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평생, 저를 괴롭혀온 무엇이 있었습니까. 저는 아주 유별난 삶을 가졌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삶입니다. 심지어 아내도 머리를 굴적이면서, “빌, 어떤 사람이라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라고 말합니다.

저는 말하길, “나도 날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 해 전에, 그리스도께 제 자신을 순종,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저 주께서 인도하시는 곳엘 갈 뿐입니다, 제가 아는 최선을 다해.

저는 훌륭한 아내와 아이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내와 아이들은 제가 그들에게 잘못된 일을 말하지 않으리라고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들은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뭔가를 말하면, 그들은 그것을 꼭 붙들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들에게 잘못된 일을 말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분에게 잘못된 일을 말하려고 하겠습니까? 고의적으로는 안합니다. 안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올바른 훈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정직하게 대하고, 그들에게 진실되게 행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9 자, 언제나, 순례 여행을 해 오는 동안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어린 아이였을 때였는데, 그 환상들이 제게 보이곤 했다는 겁니다. 저는 환상들을 보고는 부모님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좀 신경이 예민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환상이 말한 그대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건 당신의 회심 이전의 일이었나요?”하고 물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여러분이 회개를 했다고 은사들을 받는데 아닙니다; 은사들은 여러분에게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성장하면서, 제가 어린 아이였을 때, 제 소원은...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찌된건지, 항상 서부로 가고 싶어했습니다.

30 그리고 제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총에 맞았는데, 저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처음 마취에서 깨어날 때, 저는 제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마취제가 절 혼수상태에 빠지게 했습니다. 저는 여덟 시간 정도 의식 불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제게 의식을 찾게 하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페니실린도 쓰지 않고 대수술을 했습니다. 피; 양 다리가 정통으로 염종에 맞았습니다. 어린 남자 친구가 자기 총을 빗나가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나서 칠 개월 후에, 저는 또 마취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마취에서 깨어날 때, 제가 서부 초원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에 커다란 황금 십자가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31 오늘 밤 여러분이 그 사진에서 보시는 그빛,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존재라고 입증된 빛이; 체계는, 그 빛은 바울 성도를 내리친 동일한 빛이었습니다. 그건 밤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었던 동일한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천사를 보셨습니까? “그는 구름을 입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는 “낮에는 구름”이었습니다.

자, 동일한 빛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처음에는,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틀린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과학적인 기구들을 숨기고 계셨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번 그것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말하길, “저는 한 사람이 죽음의 그림자에 싸여 있는 걸 봅니다,” 그들 위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 있습니다.

32 제가 몇 주 전에 어느 도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은 사진을 찍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거기서 설교하고 있는 동안에는요. 그런데 그게 찍혔을 때 동일하게;

누군가가 사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앉아 있는 한 여자분에게 말하길, 모르는 분입니다...저는 써던 파인즈에 있었습니다. 저는 말하길, “이 아무개 양 위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자분이었습니다. “당신은 방금 의사에게 갔다 왔습니다; 암이 양쪽 유방에 하나씩 있는데, 의사들은 당신을 포기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죽음의 검은 두건으로 그늘져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옆에 앉아 있던, 플래쉬 카메라를 가지고 있던 한 자매님에게 말했습니다, “사진을 찍어라.” 그 자매님은 찍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어라,”고 말했고, 그래도 그 자매님은 찍기를 꺼렸습니다. 그리고나서 다시금 그 소리가 오자, 그녀는 사진기를 잡고...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적으로. 그것은 게시판 위에 붙어 있습니다; 검은 두건같은 그림자가.

그 다음에, 그 여자가 믿고 기도를 받고나서, 그 뒤에서 곧바로 사진을 한 장 찍었는데, 깨끗했습니다. 저는 말하길, “그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아시겠죠? 그 여자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33 여러분 제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진리를 말한다면, 여러분은 잠시동안 비웃음을 살지도 모릅니다, 잠시동안 오해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저 그것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게 사실이라고 입증하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저 붙잡고 매달리십시오. 어쩌면 여러 해가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다른 사람들의 경우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진리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천사가 거기에...때. 저는 제 아내 말고도, 오늘 밤 여기에는, 삼십년 전에서부터, 그게 내려왔을 때 가까이 서 계셨던 분들이 계신다고 믿습니다. 지금 청중 가운데 주의 천사가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 강에 내려왔을 때 거기에 계셨던 분계십니까? 네, 보십시오. 아시겠죠? 자, 저는 월슨부인도 손을 든 것을 봅니다. 그녀도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저기, 제 아내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많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후 두 시에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저는 여기 강둑에 서 있었던 사람들 중 나머지 분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몇 주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있던 마른 하늘에서, 그가 큰 소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비하러 보냄을 받은 것처럼, 너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받고 보냄을받았도다.”

34 사업가이시고, 이 도시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강둑에 서 있었습니다, 제게 그것이 무슨 의미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하길, “그건 절 위한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저는 믿으니까요.” 아-아. 그것은 떠났습니다. 그 천사가 떠났을 때,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그는 위로 올라가면서 서쪽으로 가셨습니다; 다리 꼭대기 위로 쪽 올라가서서는, 서쪽으로 가셨습니다.

나중에, 저는 천문학자를, 동방 박사 같은 분이죠, 한 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제게 어떤 별무리로 함께 모인 어느 별무리에 대해서 말해주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박사들이 세 별이 별무리를 지어, 팔레스탄 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은 제가 여러 번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번 이삼 주 전에 사실로 증명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35 싸쓰만형제님, 오늘 밤그 신문을 가지고 계시죠, 어디에 계시는지? 그건 신문에, 십 이월 구일 자 일요일 신문에 실렸습니다. 기자 한 사람이 거기서 내려가, 이런 모든 것을 파헤쳤습니다. 우리는 지금 실제로, ...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해는 1970년입니다. 돌을 파헤쳐냄으로써, 칠 년이나 뒤떨어져 있죠, 그리고 그건 잘못되었음을 증명해줍니다. 때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더 저물었습니다.

저는 프레드형제를 보지 못했습니다. 싸쓰만형제님, 여기에 계시나요? 싸쓰만형제님, 신문을 가지고 계시나요? 가지고 계신다구요. 그는 신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일 밤 형제님이 그것을 읽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 시간이 없습니다.

36 그래서, 여러분은 보실 수 있죠. 그런데, 보십시오, 정확하게. 그들 박사들의, 바벨론에서 별들을 연구하고 있던 유대인 박사들은 그 별들이 그 별무리 안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메시야가 땅에 오셨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노래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 년 간의 여행을 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들은 이 거리 저 거리를 헤맸습니다. 글썄, 이스라엘은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저 광신자들!” 그들은 결코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메시야는 지상에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잘 아십니까, 그들이 한 말도. 자, 우리는 내일 밤에, 그것을 읽겠습니다.

37 자, 환상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전하느라고, 왜냐하면 환상들은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순례 여행을 해오는 동안, 무언가가 절 끌어 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사가 제게 이런 일들을 말했을 때, 저는 청년에 불과했었습니다, 수련 감시원이었죠; 그 전에, 저는 그것이, 이런 일들에 대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절 겁나게 했습니다, 저는 그 점성술가를 무서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성경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은 옳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선포하시기 전에 하늘에서 미리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하늘의 천체를 관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어느 누구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라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자, 하지만,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받아들이십니다. [테이프에 공백 있음—주]

38 그 다음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저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오, 어떻게 그것이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설명하려면, 몇 시간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점성술가는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동부에서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말하길, “당신은 한 징조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하길, “당신은...그 징조, 그 별무리는, 당신이 태어나던 날, 거기서 서로 십자 방향으로 가로놓여서, 서쪽으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서쪽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말하길, “그런 말씀 마세요.” 저-저는 그런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말은 제 생각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39 다음에, 제가 그 날 밤 저 위에 있었을 때, 이 환상들에 대해서. 저는 환상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침례교 형제님들은 그게 마귀에게서 온 것이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는 절대적으로 그것을 성경에 비춰 보여주었습니다, 말하길, “그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아무 것도 모르고 그들이 어떤 코트를 입어야 하며, 어느 옷을 입어야 하고 등등, 자기들의 다른 점들에 대해서; 그 동방 박사들은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별을 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속이는 자, 바알세불이라고 설교자들이 말했을 때; 마귀 하나는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시니이다. 어째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40 바울과 실라가 내려왔을 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앉아 있던 한 조그마한 점장이자...그 지역의 설교자들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기꾼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등등, 그들의 부패한 말로 세상을 전복시키려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조그마한 박사, 그 조그만 점장이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말하는 자들이로다.”

그러자 바울은 그 여자 안에 있던 그 영을 책망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누군지 증거받을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이 잠잠하도록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마귀들이 설교자들보다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많이 알고 있음을 보여 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교회 체제에 묶여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41 오 년 전, 어느 날, 노먼형제네서 나와서, 운전을 하며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방금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 그런데 주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제게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여기 제 집 문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궂은 날씨 같았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 환상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건 제 환상을 기록한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잊어버리지 않고 있으려고 환상들을 기록해 둡니다.

제가 본 이 환상에서, 뭔가가 도로로 들어왔고, 저의 집 안 마당에는 큰 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땅 고르는 기계들과 페인트 붓기는 기계들이 도로에 즐비했고, 나무들은 잘라지기도 하고 뿌리가 뽑혀 있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문으로 들어가고있었는데, 돌무더기로 인해 막혀 있었습니다. 저는 나와서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죠?”

그러자 그 남자는 아주 적의를 보이면서, 절 뒤로 밀치고, 말했습니다, “목사들은 저 모양이라니까!”

저는 말하길, “저는,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물었을 뿐인데요. 당신—당신들은 제 집쪽 여기로, 집 앞 길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했죠?” 그러자 그는 절 때릴까 하다가, 절 뒤로 밀쳤습니다.

42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그 사람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말해줘야겠군.”

그러자 한 음성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너는 목사다.”

그래서 저는 말하길, “줄습니다.”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대문 앞에는, 낡은 대형 포장마차가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시죠, 포장을 덮은 마차, 말들이 끌고 가는. 운전석 맞은 편에는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다 보니, 아이들도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차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아내에게, “여보, 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봤어.”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줄을 잡고 말에게 신호를 보내고, 서부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음성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거든, 서부로 가거라.”

43 여기 우리 교회에 계시는 건설업자이신 우즈형제님은, 이사이기도... 몇 분이냐 제가 여러분에게 그 환상을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고 계시죠? 물론입니다. 그건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우즈형제님에게 말하길... 그는 교회로부터, 거기 사이에있는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석조 주택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말하길, “우즈형제, 그들은 거기서 당신의 돈을 내주지 않으려고 할테니까, 그러지 마세요. 어쩌면, 아마...” 그건 여러 해 전, 오 년 전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들은어쩌면, 여기를 관통하는 다리를 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돌들은 어쩌면 제 집의 지하실을 부순 것일 것이고, 여기 놓여져 있는 제 집 계단들과 그런 것들일 겁니다.” 돌이라기 보다는, 콘크리트 덩어리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이 아래 여기에 세울 겁니다, 신문에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실렸으니까요.”

네, 우즈형제는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일 년 뒤, 아니면 이 년 뒤에, 여기 이 쪽 길로 다리를 관통시켜 세울 거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잊어 버리고,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44 그런데, 일 년 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주니어 잭슨형제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감리교회 목사인데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우리 자매 교회 중 한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루고 계시는지를 보여 드리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이 회중 만큼,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회중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마땅히 되어야 할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알기로는 누구 못지 않게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45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까요. 잭슨형제님이 꿈을 하나 꿴습니다. 그는 그 꿈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교회를 떠나려 하고 있었는데, 그는 정말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잭슨형제님, 그 꿈을 언제 꾸셨죠?

[잭슨형제가, “브래넘형제님, 61년 이 월에 껴습니다.”—주]

61년 이 월에, 그 꿈을 꾸셨답니다. 그런데 그가 제게 오더니 말하길,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브래넘형제, 그 말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저는 말하길, “잭슨형제님, 말씀하세요.”

그는 말하길, “제가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그 꿈은 연관되는 꿈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경청하고 지켜 보았습니다. 그는 말하길, “저 들판 같은 곳에, 아주 커다란 산이 있었는데, 파란 잔디와 그런 게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길, “이 산 꼭대기 위에는, 물이 흙을 다 씻어 내려갔는데, 거기에는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산꼭대기처럼, 산꼭대기 위에 있는. 그건 바위였고; 이끼가 없었습니다.”

물이 씻겨 내려간 곳에, 이 돌들 위에는 어떤 글씨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님이 거기에 서 계셨고, 이 돌들 위에 새겨진 이 글씨를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길, “우리 모두는,” 그는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온 형제님들, 여러 주에서 오신 분들, 우리는 다 함께 서서 당신이 그 산, 그 돌에 쓰여 있는 그 신비스런 글씨를 해석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46 그리고 말하길, “다음에 당신은 공중에서 뭔가를, 부수는 지레나, 쇠지레 같은 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형제님, 그 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주 날카로운, 부수는 지레 같은 것.” 그리고 말하길, “그것, 저는 형제님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말하길, “형제님은 그 산 꼭대기를 내려쳤고, 주변을 쪼개고, 거기서 그 꼭대기를 떼냈습니다. 떠낸 그것은 피라미드의 형상이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의 꼭대기를 쪼개서 떼어냈습니다.”

자, 그것은 피라미드 메시지가 설교되기 여러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길, “그 밑에는 흰 돌, 화강암이 있었습니다. 형제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 해나 빛이 이것 위에 비춘 적이 없었습니다. 이 안을 들여다 보십시오. 이것을 지켜보십시오.”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형성될 때, 세상은 빛이 있기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물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그때, 태초에,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연히, 거기 아래에서, 그 형성이 진행될시대에, 그 빛은 그 돌을 비춘 적이 없었습니다.

47 그리고 그는 말하길, “이것을 보십시오. 전에는 빛이 그것을 비춰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일어났을 때, 저는 그들에게 그것을 지켜보라고 말했고, 그들은 모두 들여다보려고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하길, 그들이 들여다 보고 있는 동안, 그는 결눈질로 보았습니다, 그랬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절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한쪽으로 살짝 빠져 나가 서부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는 쪽으로; 산을 올라 갔다가 내려갔다가;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점점 더 작아지다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는 말하길, 제가 그렇게 했을 때, 그는 말하길, “그때 형제님들은, 잠시 후에 뒤를 돌아보면서 말하길, 그가 사라졌습니까? 그가 어디로 갔죠?”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길, “어떤 분들은 저쪽으로 떠났고, 어떤 분은 다른 쪽으로 떠났고, 어떤 분은 다른 쪽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서 제가 그들에게 말한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꿈의 해몽을 보십시오. 그건, 저는 한 번도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분에게도 이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길, “그래요.” 제 마음은, 떨렸습니다. 저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스러운 글씨는... 기다리십시오, 잠시만 그것을 미루겠습니다.

48 얼마 전에... 빌러형제님...빌러형제님은 대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빌러형제님, 여기 계십니까? 네, 저기 뒤에 계시는군요. 빌리는 말하길, “빌러형제님이 아주 괴로워 하고 계세요. 그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빌러형제님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하길, 어느 날 밤 저 아래 그의 집에서, 저는 그때 몇 분들의 집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하길, “브래넘형제님, 이상한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말하길, “꿈을 꾸었는데 저는 흐르는 시냇물을 따라, 서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왼 쪽으로 길이 하나 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왼쪽에서, 서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떼를 찾으면서요. 그런데 오른쪽에, 제가 거기에 이르고나서 우연히 보았더니,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형제님은 아주 많은 소떼를 몰아서 모으고 있었고, 거기에는 먹일게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길, “그리고나서 형제님은 그 소떼를 모아서 그들을 강을 거슬러 올라가게 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걸음으로 보기에, 제가 그에게 그 소떼들을 지켜보라고 고개를 끄덕여 신호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길, “이제 그 소떼에게는 편안해질 것이다, 저는 그들이 거의 저항을 받지 않는 길을 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래넘형제는 그 소떼가 그 강의 오른쪽 길에 머물기를 원하고, 그래서 저는 그 길로 거슬러 올라가 소들이 이 쪽으로 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고, 그 쪽에 머물러 있도록 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보았습니다, 저는 결코 그 소떼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서쪽으로 갔습니다.

그는 말하길, “그가 분명히 길 잃은 소들을 찾고 있을거야.”

49 그가 그 꿈을 얘기하자마자, 저는 그 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나서, 보십시오, 그는 저에 대해서 약간 걱정이 되었고, 그래서 찾아보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산같은 것을 만났고, 갑자기 제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왼쪽으로 갈라진, 작은 시내 옆에 있었습니다. 빌러형제님,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데 그가 보니까...그런데 제 쪽에는 큰 폭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가 그 폭포에 휘말려들어서 죽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보니까,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폭포로 인해 생긴 일들을 보았는데, 이 쪽

으로 내려가는데 웅달샘이 솟아나게 했지만, 그 물은 결코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그마한 가지, 아니 작은 시내를 건너다 보았는데, 동그란 귀를 가진 작은 동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길, “저걸 하나 잡아야지.” 그래서 그는 건너갔습니다.

50 그때 그는 저에 대한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딛고 올라올 수도 있을 작은, 좁다란 바위 턱 같은 게 있는지 보려고, 얇은 언덕 위로 올라가셨답니다. 하지만, 말하길, (Eng.p. 21)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는 말하길, “우리 형제에게 무슨 일이 생긴걸까? 브래넘형제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그가 겁이 났을 때, 그는 제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산 꼭대기에 서 있었고, 오래 전 제가 그에게 준 꿈의 해몽에 대해서 빌러형제에게 말했습니다; 그에게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했고, 언젠가 어떤 섬에서 그를 만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꿈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 시내가 넓은 시내였다는 것은, 그것은 생명 시내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서쪽으로 가고 있었고, 그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길을 걷고 있었고, 그는 작은...이 길에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편에는 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정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풀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음식을 찾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어렵게 말하죠. 소떼를 몰아서 모으는 것은; 이 교회입니다; 그들을 그쪽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겁니다. 소떼는 실제로, 가능하다면 평평한 길로 갑니다, 교파죠; 그 길은 교파를 나타냈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떤 교파로도 가지 않도록 지키라고, 그가 그 길을 거슬러가도록 했습니다.

그가 전적으로 넘기 불가능한 벽을 보았다는 것은, 제가 서부로 가지 못하도록 했던 것은 정부와의 세금 문제였습니다. 아무도 제가 어떻게 그 문제로부터 빠져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를 가로 막고 있던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절 이끌어주셨고, 저는 그 일을 처리해냈습니다. 빌러형제님, 저는 그 섬에서 형제님을 만날 것입니다.

51 이제, 다음에, 그 일 바로 뒤에, 로이 로버슨형제님이. 로이형제님, 오늘 밤 여기 오셨습니까? 네, 저-제가 믿기로는... 뭐라구요? [어떤 형제가, “저 쪽에 계십니다.”라고 말한다—주] 여기 이쪽예요. 그는 제게 전화를 했고, 꿈을 꿔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소떼를 모으고 있는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것은 세번째 꿈입니다.) 소떼를 몰고 있는. 풀이 허리에 찰 만큼, 먹이가 충분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다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하려고 어느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프레드 싸쓰만형제님이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아, 위대한 선지자께서 오늘 여기서 정오에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식사를 마쳤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왜 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지 않았는지 궁금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자, 그게 얼마나 잭슨형제님의 꿈과 맞는지 보십시오! 아시겠죠, 그야말로 정확하게 빌러형제가 말한 것과 맞습니다! 아무도 기다리고,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52 보십시오, 그 일 후 곧바로, 칼린스자매님이(칼린스자매님, 여기에 계십니까?) 여기 교회에 있는데 결혼식이 진행 되려고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자매님은 신랑이 입장하는 것을 보았는데,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그다지 아주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신부였습니다; 그건 교회를 나타냅니다.

거기에는 성찬같은 게 있었는데, 아니 여기에서 예배가 계속되는데, 식사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빌형제님이 교회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녀에게 좀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음식은 가장 훌륭한 음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도 배가 고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생각하기를 아마 그, 꿈 속에서, 네빌형제님이 그것을 대접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월러드형제님과 함께 랜치 하우스에 식사를 하려고 나갔습니다. 그럴 때, 오른 쪽에 있는 그 빛이 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그게 원치 아니죠.

자, 그 음식은. 신부는 완벽하지 않지만 신랑은 완벽합니다. 신부는 아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그 음식은 육적인 음식이 아니었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아온 그 영적인 음식입니다.

제가 잠시동안, 여기 그 네번째 꿈에서 멈추겠습니다.

53 프레드 싸쓰만형제, 뱅스 우즈형제, 우리가 작년에 애리조나주에 있었을 때, 해블리나 돼지를 사냥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일 생각납니까? 우리가 그리로 갈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보여 주시고, 완벽하게 행하신 일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맞다면, 두 형제님은 “아멘”하고 말하십시오. [형제들이, “아멘”한다.—주]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느 날, 우리가 차를 타고 가고 있을 동안에, 환상에서 보았습니다, 주의 환상이 제게 왔고, 저는, 그 때, 집으로 돌아가면서, 해외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해외에 갔을 때, 어, 저는 배에서... 아니 바다 옆에, 배들이 운항을 시작하는 부두에서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키가 작은 조그마한 남자분이 한 사람 있었는데, 말하길, “브래넘형제, 내가 당신을 위해 보트를 준비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쏘그만 카누, 삼십 센티미터쯤 되는 카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흰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게 말하길, “이 배는 당신이 타고 건너갈 배입니다.”

“오,” 저는 말하길, “그것-그것-그것은 작아서.”

그는 말하길, “그건 한 시간에 사십 마일로 갑니다, 이 쪽으로 위 아래로.” 그건, 독 위 아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길, “그건 제가 강을 건너가게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자 그는 아래를 내려다 보고는 말하길, “저 사람들처럼 가세요.” 보니까, 거기에는 프레드 싸쓰만형제님과 뱅스 우즈형제님이 초록색 카누에 앉아 있고, 그 배 뒤에는 캠핑 장비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뱅스형제는 위로 말아 올린 모자를 이렇게 쓰고 있었고; 프레드형제는 곳에서 그 배를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처럼 가십시오.”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말하길, “아뇨. 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그들에게, 그 키작은 남자,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사공입니까?”

뱅크형제가, “그렇소.” 했고

프레드형제도, “그렇소”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길, “그들은 사공이 아닙니다. 제가 사공입니다, 저는 그 일만을 위해서는 가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는 가지 않겠습니다.”

말하길, “그들과 함께 가지지 않으렵니까?”

저는 말하길, “아뇨. 안 갈 겁니다.” 어,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그때, 그 부두에 있던 그 키작은 남자는 다름아닌 좋은 형제님이신 아겐브라이트형제님이었습니다.

54 그리고 저는 이 환상에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는 조그맣고 긴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제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니 많은 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한 음성이 제게 말하길, “음식을 들여오너라. 그것을 저장해두어라. 그게 그들을 여기에 머물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고, 예쁘기 그지 없는 당근과 예쁜 채소들로 가득한 커다랗고 큰 바구니들을 들여다 놓고, 들여다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환상을 기억하십니까?[회중이 “아멘”한다—주] 자, 저는 여러분에게 나중에 그 해석이 어떤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일 밤 동안 집회를 열기 위해서, 아겐브라이트형제와 함께 스위스 취리히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형제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해석을 주었을 때, 저는 저 아래 웰치 에반스형제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55 어느 날 밤, 제가 믿기로는 웰치형제님이 오셔서 저를, 우리는 낚시 여행을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아겐브라이트형제님이 전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말하길, “좋습니다, 두고 보세요. 그들은 제게 떠나자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마이너형제님을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친구들 중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만일 그들이 할 수 있다면... 만일 그들이 여러분이 그들의 교리에 반대되는 뭔가를 설교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들은 여러분의 친구들을 거기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저 여러분이 그곳에 오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길...

아겐브라이트형제님이 제게 전화를 해서 말했습니다, “브래넘형제님,” 그저 성령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말하길, “오세요, 부인도 함께 오세요,” 말하길, “형제님은 설교를 많이 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말하길, “그들은 당신이 하루 밤 설교를 하도록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하길, “그 설교도 하시지 않아도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길, “안 가렵니다.”

말하길, “어, 그러지 말고 부인과 함께 오세요, 아시겠죠, 그러시면, 제가 관광을 시켜 드릴게요. 오, 형제님 부인과 제 아내, 그들 모두다, 우리 스위스를 여기 저기 구경하고 팔레스타인에도 갑시다.”(Eng.p. 24)

저는 말하길, “안 가렵니다.”

저는 그 해석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웰치형제님에게, 아니 프레드형제님과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내 아내가 말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에게 전화를 했을 때, 아내는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말하길, “보셨죠.” 아시겠죠?

56 자, 그 조그마한, 흰 배는 그 한 번의 집회였습니다. 여기, 강둑에서, 하루의 집회에 가는 것은 어디를 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해외로 가려면, 그게 희고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루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환상에서 대표했던, 프레드형제와, 거기 있던 형제는, 그들은, “재미로, 관광객으로 가세요.”를 나타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길 좋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이 사공이 아니라고 말했던 것은, 그들은 설교자들이 아님을 의미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설교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작고 긴 건물 안에 있는 음식은. 저는 해외에 가지 않고, 이 조그마한 건물에 들어와,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을 보여 주기 위하여, 피라미드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에 관하여, 열두 개 이상의 테이프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다른 것, 꿈들과 비교도 해 보십시오. 이것은 환상이었습니다. 그 음식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이 그 장소입니다.

57 보십시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번째 환상이 오고, 아니 네번째 꿈을 듣고 난 직후에, 파넬형제님이 오셨습니다. 그가 여기 어딘가에 계시니다, 바로 여기 계시는군요. 빌리는 여기에 없었는데, 그는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가 블루밍튼, 아니 뽀퍼드에 사시죠? [한 형제가, “라파에트”라고 말한다—주] 라파에트요, 집회를 열고. 그는 꿈을 꾸었는데, 그는 우즈형제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는 말하길, “난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꼭, 브래넘형제에게 그것을얘기를 해야만 합니다. 저는 그 꿈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꿈들 사이에 하나의 꿈도; 그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왔습니다.

58 파넬형제는 말했습니다, “이상한 꿈을 꿔습니다. 저는 저 위에서 집회를 열려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건지, 여기에서, 새 교회 같은 데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길, “이 새 교회는,” 그게 어떤 모양일지, 그는 왜 그들이 두 교회 사이에협조가 없었는지, 그렇게 말이죠,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 서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함

니다, “어, 내가 여기 왔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예배에 참석해야지.” 말하길,

“갈색 양복을 입은 한 사람이 건물에서 나왔는데, 책을 한 권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글을 쓰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파넬형제님에게 말했습니다, 말하길, “이 모임은 자체적인 모임입니다. 집사들과 이사들만 모이는 모임이죠.” 어, 그는 좀 언짢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새 교회 밖으로 나갔습니다, 세워진, 아니 이것이 개조된, 공사가 된 교회를. 그가 밖으로 나오자, 눈이 오고 있었고, 날이 안 좋고, 겨울철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59 그가 문 밖으로 나오자, 제가 서쪽을 보면서, 거기서 서 있었답니다. 저는 말하길, “파넬형제, 언짢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당신이 해야될 일을 지시하겠습니다.”

그런데 파넬형제님과, 나머지 분들도, 제가 결코 그들에게 해몽을 말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말하는 때를 보면서. 파넬형제님, 제가 얼마나 재빨리 거기서 빠져나갔는지 보셨죠? 형제님에게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었습니다. 그대로 지내고, 우즈형제나, 다른 누구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흘러 보내고,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이끌고 있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저는 괴롭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셨죠? 정말로 괴로웠습니다. 바로 그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파넬형제님, 그는 제가 그에게, “파넬형제님, 시작하세요. 처음으로 이르게 될 곳은 심보라일 것입니다.”라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심보라, “심보라”는 하이픈, 또는 멈춤, 또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말하길, “거기서 머물지 마십시오. 그대로 가십시오, 다음에, 형제님은 나이트 여자를 한 사람 볼 것인데; 그때 거기서도 멈추지 마십시오. 다시 가시면, 아주 높은 노파를 만날 것입니다; 거기서도 멈추지 마십시오.”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 내내 우리는 눈을 맞으면서 걸었답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답니다, “제 아내를 만날 때까지 가십시오. 제 아내를 만나게 되면, 거기서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가 보니까, 우리는 눈이 없는 사막에 있었답니다. 그리고 저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물에서 우물에서 펌프질을 하고 있었고, 어떤 목사가 그녀를 그 펌프질을 못하게 하려고 끌어당기고 있었답니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에서 깬습니다.

60 형제님의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저는 그 날 밤, 형제님에게 말씀드릴 수도 있었지만,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 심보라로 말하자면, 그리고 한 나이트 여자와, 또 다른 정말, 정말 높은 여자는; 그건 교회들입니다. 아시겠죠? 심보라는 사실 모세의 아내였습니다, 심보라; 우리는 제가 그에게 그들이 아무리 늙었더라도, 그들에게서 멈추지 말라고 말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조직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들은 살만큼 다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 아내에게 오자, 그건 예수그리스도께서 저를 파송한, 이 마지막 날에, 제 교회입니다, 여기서 그것은, “거기서 멈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부로 사라졌습니다.

61 다음에는 스테피자매님입니다. 어쩌면 여기에 안 계실지도 모릅니다, 병원에 계시니까요. 그녀가 어디 있는지 전 모릅니다. 스테피자매님이...네, (Eng.p. 26) 여기 계시군요. 스테피자매님은 병원에 수술을 받으러 가기 전에, 기도를 받으러 저의 집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정말로 그러셨군요.

그런데 그녀는 말하길, “브래넘형제, 전 이상한 꿈을 꿔요.”

저는, “그래요?”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말하길, “제가 서부에 있는 꿈을 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건 여섯번째 꿈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하길, “제가 서부에, 기복이 진 평야에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보았을 때, 언덕 위에 길고 흰 수영을 가진 정말로 나이드신 남자분이 서 있었었습니다, 얼굴을 뒤덮고 있는 긴 수영이. 그런데 그는 흰 옷 같은 것을 두르고 있었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길, “바람이 수영을 날렸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스테피자매님, 그렇죠. 그리고 말하길, “저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는 저 위 산 꼭대기 위에서, 동쪽을 지켜보고 있었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길, “이 늙으신 남자분이 누구니까?”하고 궁금해 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가까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가까이가자, 그녀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봤습니다. 그 사람은 불멸의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거기 위에 서서 동쪽을 유심히 보고 있었었습니다.

62 그녀는 말하길, “그분을 봐야겠다.” 그녀는 필요한 것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산을 뛰어 올라가 거기에 었었습니다, 그에게 말하기 위해서, 엘리야의 이름을. 그런데 말하길, 그녀가 말을 했을 때... 그녀는 한 음성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스테피자매, 뭘 원하시죠?” 그것은 저였습니다.

스테피자매님, 당신의 꿈은 바로 거기서 성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후에, 저는 루이빌로 갔습니다. 그녀가 필요로 하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녀는 병원에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서부로 가는 징조, 제 양떼를 생각하면서, 동쪽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의 징조였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루이빌에 갔습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저는 대문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 대문 위쪽으로는 막대 기둥들이 박혀 있었었습니다. 고인즈씨가, 여기 도로에서 올라가고 있었었습니다. 그는 말하길, “빌리, 이리 와 보세요.” 그는 말하길, “당신의 대문과, 담장, 돌 담장, 대문을 옮겨야겠습니다.”

저는 말하길, “어, 빌, 좋아요.” 저는 말하길, “내가—내가 옮기죠. 언제?”

그는 말하길, “제가 말씀드리죠. 언제일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말하길... “새해 첫날부터,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하나 봅니다.”

저는 말하길, “알겠소.”

63 그래서 저는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내가, “빨리 채소가게엘 가야겠어요.” 저는 길로 내려갔습니다. 시청에서 토목 기사로 있는 레이몬드 킹이라는 사람이. 저는 언제나 그를 “진흙 귀”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함께 수영을 했는데, 그는어떤 사람의 귀에 진흙 덩어리를 내리쳤기 때문이에, 우리는 언제나 그를 “진흙 귀”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제가 사는 도로 아래 쪽에, 우즈형제님네서 두번째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드, 잠깐만 이리 와 보세요.”

그는 말하길, “좋아요, 발리.” 그는 거기로 왔습니다.

저는 말하길, “그 막대기등을 당신이 박아 놓았어요?”

그는 말하길, “발리, 그건, 그들이 전부 다 안으로 들어가게 할겁니다.” 말하길, “나무들과, 이 담장들과, 다른 모든 것들도 옮겨져야 한답니다.”

저는 말하길, “어, 그 기사가 내 땅도 도로의 반으로 들어간다고 말하더군요.”

말하길, “그래요, 그들은 도로를 확장하는 겁니다. 어찌되었건간에, 안으로 옮겨야 한답니다.” 말하길, “나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저는 말하길, “어, 우드형제님이 석수니까,” 저는 말하길, “그 담장을 뒤로 빼 달라고 해야겠군요.”

말하길, “발리, 손대지 마세요. 건설업자가 하도록 놔두세요. 그건 목사관이죠, 그렇지요?”

저는 말하길, “그렇습니다.”

말하길, “그 사람이 하게 두세요.” 말하길,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저는, “압니다,”했습니다.

저는 작별을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뭔가가 번쩍 생각났습니다.[브래넘형제가 손가락으로 딱 소리를 낸다—주] 집으로가서, 지하실 방으로 내려가, 그 책을 들고 보았더니,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콘크리트 불럭이 아니라; 돌이었습니다.

저는 말하길, “미다, 준비를 해요.”

64 여섯번의 잇따른 꿈과 다음에 환상이 그 꼭대기를 장식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서부로 가거라.”

저는 투산에 전화를 했습니다. 노먼형제님은 집을 구해놓았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는지 모릅니다. 뭘 해야할지도 모릅니다. 그저... 저는 서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릅니다. 저는 집세를 내지 않아도 뭘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제 월급은일 주에 백 달러입니다. 이제 저는 한 달에 거의 백달러를 집세로 내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절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갑니다,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이유를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아는 게 있다면,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도 모르고, 뭘 해야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강 건너로 가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런 식의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저 여행을 떠나 혼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릅니다.

65 지난 주 토요일 오전, 어제로부터 일주일 전에, 새벽 세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물을 좀 마시고 요셉의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다시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을 때... 제가 이 여러 가지꿈과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의 배경을 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저는 요셉을 덮어주고, 돌아와 누웠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꿈에서 몸집이 아주 크지만, 제 아버지 같아 보이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라는 한 여자를 보았는데, 어머니와 닮지는 않았습니다. 이 남자는 그의 아내에게 아주 못되게 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나무에서쪼갠, 세모꼴의 몽둥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장작을 만들어서, 잘라내면, 아시겠죠, 각진 세모꼴 막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그는 그 여자의 목살을 잡고는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쓰러지게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그 여자는 거기에 누워서, 훌쩍거리며 울다가, 다시금 일어나기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는 몸집이 큰 사람인데, 가슴을 내밀고 뽐내면서 주변에 걸터다녔습니다. 그 여자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자, 목살을 잡고는 이 세 각진 몽둥이를 가지고, 그 여자의 머리를 내리쳐 땅에 내동댕이쳤습니다. 자기가 무슨 큰 일이라도 한 것처럼, 가슴을 내밀고 걸터다녔습니다.

66 저는 옆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난 그 사람과 싸울 수 없어. 그는 너무 몸집이 커. 그리고, 그는 내 아버지인 것 같아, 하지만 내 아버지는 아니야.” 그리고 저는 말하길, “저 남자는 저 여자를 그렇게 대해서는 안되는데.” 저는 좀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때, 갑자기,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가서, 앞뿔자락을 잡고 그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하길, “당신은 저 여자를 때릴 권리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근육들이 커졌습니다. 저는 거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그 근육들을 보자, 절 무서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길, “다시 저 여자를 때리면, 나와 한 번 겨뤄야 할 겁니다.” 그는 다시 그녀를 때리지 못하고 주춤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때 저는 잠이 깬습니다.

저는 잠시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꿈이 무슨 꿈이지? 그 여자에 대해서 꿈을 꾸다니 이상한 일이다.” 잠시 후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그 꿈의 해석을 받았습니다.

67 그 여자는 오늘날의 세상 교회를 나타냅니다, 전 세계. 저는 이 혼란 가운데서 태어났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 여자는 제 어머니와 같은 여자... 만일 그녀가 음녀의 어머니였다면, 하지만 저는 바로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지배하는 교파들입니다. 그녀가 가졌던 세모꼴 몽둥이는 거짓 이름들로 주는 그 삼위일체식 세례입니다. 그, 그 여자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마다, 회중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마다, 그는 그 교회를 몽둥이로 때려 쓰러지게 했습니다. 물론, 그가 몸집이 큰 사람이어서, 저는 돌아서서 조금 그를 두려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에게 달려들자, 그 근육은 믿음의 근육이었습니다. 그것은 저로 이렇게 생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근육들을 주실 수 있다면, 나는 그녀를 위해서 일어서리라. 그녀를 그만 때려라!”

68 오전 열 시쯤 되었나 봅니다, 아내가 방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으니깐요, 그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날 아침 환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건지 저는... 자, 명심하십시오, 그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꿈과 환상은 다릅니다. 꿈은 여러분이 잘 때 꾸는 겁니다. 환상은, 자면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람은 보통, 꿈을 꿀 때, 무의식 상태에서 꿈을 꾸는 겁니다. 무의식은 그에게서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첫 의식 상태가운데 있는 한은, 오감이 활동합니다. 이 의식 상태에서, 그건, 여러분은 정상적으로; 보고, 맛보고, 감각을 느끼고, 냄새를 맡고,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잠을 자면서 무의식 상태에 있을 때는, 보지도, 맛보지도, 느끼지도, 냄새를 맡지도, 소리를 듣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꿀 때, 여러분은 이 의식에 돌아 옵니다. 여러분이 몇 년 전에 꿈을 꾸었던 것을 기억하는, 기억이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뭔가를 예정하시면, 이 무의식 상태는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게 됩니다, 선견자에게 있어서, 그 두 의식상태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면서, 그 선견자는 잠이 들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환상을 보는 겁니다.

69 저는 얼마 전, 그것을 몇몇 의사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놀랍습니다.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했습니다. 제가 뇌파 검사를 받을 때, 그들은 말하길 제가... 그들은 그와 같은 것은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어, 뭔가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말하길, “바로 그겁니다,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 두 가지 의식 상태는 아주 가깝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른 사람과 다르냐 하면 그럴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잠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잠을 자는 것처럼,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서서, 이렇게 밖을 내다 봅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은 모두 다 그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여기 강단에 서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여러분은 제가 환상에 들어갔다 돌아오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차를 타고 가다가도,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합니다; 결코 어긋나지 않았습니,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게 틀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회중이 “아뇨”한다—주] 없습니다. 그건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인 이상, 그것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강단에서, 수천 명, 수천 수만명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심지어 저는 말하지도 못하는 다른 언어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환상은 어긋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십니다!

70 자, 이 환상에서, 아니면 제가 말을 하고 있을 때, 저는 보았는데 이상한 일을 보았습니다. 자, 그것은 마치 어린 아들인 요셉이 제 곁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환상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은 왜 요셉이 거기에 서 있었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거기에는 큰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나무 위에, 한 길이는 반 인치, 높이는 반 인치 되는 아주 쪼그만 새들이, 별무리를 이루듯 앉아 있었습니다. 그 새들은 작은 퇴역군인이었습니다. 그 새의 깃털들은 거의 다 빠지고 없었습니다. 두세 마리는 맨 꼭대기 가지에, 여섯내지 여덟 마리는 그 다음 가지에, 열 다섯 내지 이십 마리는 다음 가지에 앉아서; 피라미드의 형상으로 내려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작은 새들, 작은 사자들, 그 새들은 꽤 상처가 많은 새들이었습니다. 그 새들은 동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에서, 저는 애리조나주 투산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가 그곳이 어딘지 못보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그것을 확실히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막에서, 도깨비 바늘을 때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길, “자, 나는 이것이 환상임을 안다, 내가 투산에 있다는 것을 안다. 저기 있는 그 작은 새들이 무언가를 나타낸다는 것을 안다.” 그 새들은 동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은 날아갈 것처럼 하다가, 동쪽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71 그들이 떠나자마자, 조금 더 큰 새들이 별무리를 짓듯 날아왔습니다. 그 새들은 끝이 뾰족한 날개를 가진 비둘기처럼 보였는데, 회색빛 같았고, 처음 작은 사자들보다도 좀 연한 빛깔이었습니다. 그들은 켜켜이,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제 눈에서 보이지 않게 되자마자, 저는 다시 서쪽을 보려고 고개를 돌렸는데, 그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로 온 땅을 뒤 흔들었던 폭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테이프를 들으시는 분들, 꼭 이 말을 제대로 들으십시오.

처음엔, 폭음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소리의 장벽처럼 들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들이 음벽을 통과할 때 나는 소리를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그 소리는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저 흔들고, 마치, 으르렁대듯, 모든 것을. 다음에는, 아주 크게 천둥이 친 것 같았고, 번개도 치는 듯 했고; 저는 번개를 보지 않았습니. 저는 그저 아주 굉장한 폭음이 나

는 걸 들었고, 그것은 제게서 멕시코쪽으로 남쪽으로 가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72 하지만, 그것은 지구를 흔들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여전히 서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쪽 영원 속으로, 저는 어떤 것의 별무리가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조그마한 점으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섯도 안되고, 일곱도 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사자들이 왔을 때처럼, 피라미드의 형상으로 왔습니다.

그게 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절 들어 올려 그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환상은 결코 절 떠나지 않았습니다. 팔 일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 환상처럼 절 괴롭힌 환상은 없었습니다. 제 가족이 여러분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73 저는 그 천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뒤에 달린 날개들과, 소리보다 더 빨리 날아왔습니다. 그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잠시 잠깐 사이에 영원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붙일 틈도 아니고; 잠깐 깜박일 때, 그 천사들이 거기에 왔습니다. 저는 셀 수 있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강력한 자들, 크고, 강력한, 백설 천사들; 날개가 달려 있고, 머리는. 그 천사들이, "휴우-휴우!"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이 별무리의 피라미드 속으로 들려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하길, "자, 이것이 끝이다." 전신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하길, "오, 세상에! 이것은 날 죽일 폭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난 이제 인생 끝에 이른거야. 이 환상이 끝나면, 교회에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이 사실을 알게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내 때가 끝났다는 것을 이제 알려 주신거야.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그는 죽을거야'하고 걱정할테니까 말이야. 이 천사들은 나를 위해서 왔구나, 얼마 안 있어서 폭발 같은일로 죽게 될거야."

그 다음에 제가 이 별무리 안에 있을 동안에, 그게 제게 왔습니다, "아니다, 그건 아니야. 만일 그게 널 죽일 거라면, 요셉도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요셉이 절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 그때 저는 다시 몸을 돌렸고, 저는 생각하기를 "주 하나님, 이 환상의 의미가 뭐죠?"

저는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그게 제게 왔습니다, (음성이 아니라) 제게 왔습니다, "오! 그건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려고 오신 주의 천사들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양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오 주 예수님, 제게 뭘 시키려 하십니까?" 그러자 그 환상이 절 떠났습니다. 거의 한 시간 동안, 저는 감각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74 자, 여러분들은 주의 축복이 어떤지를 아십니다. 하지만, 주의 권능은 전혀 다릅니다, 주의 권능이 그와 같은 곳에서 임하면. 저는 전에, 여러, 아주 여러 번, 환상을 볼 때마다 그 권능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전에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건 경외하면서 느끼는 두려움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저는 이 존재들 앞에서는, 몸이 마비가 될 정도로 너무도 무서웠습니다. 저는 지금 진리를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제가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것을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잠시 후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 제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면, 알려 주셔서 제가 이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게 다른 원가라면, 알려 주십시오." 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성령이 절 떠난 뒤에, 한 삼십 분 동안, 그 정도나 좀 더 되었을 겁니다, 저는 말하길, "주님, 만일 제가 죽임을 당할 거고, 이 땅에서 주님이 저와 일을 끝내시어, 이제 절 본향집으로 데려가실 거라면, 만일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러니," 저는 말하길, "만일 그렇다면, 제게 알려 주소서. 다시 저에게 당신의 권능을 보내시고, 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알리지 않게 저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절 데리고 가실 것이므로." 그리고 저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기다렸습니다.

그때 저는 말하길, "주 예수님, 그걸 의미하지 않은 것이고, 주님께서 제게 무슨 일인가를 하도록 하려는 의미라면, 그리고 그 일이 나중에 제게 계시될 것이라면, 당신의 권능을 보내소서." 그런데 그 권능은 절 거의 그 방에서 데리고 가실 정도였습니다!

75 저는 어느 구석에 가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어딘가에서, 아내가 문을 흔들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침실 문은 잠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펼쳐 놓고 있었는데, 그것은... 저는 읽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로마서 9장, 마지막 절이었던 것 같습니다....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있다니 이상하구나." 성령은 다시 절 감쌌습니다, 방 안에서! 저는 성경을 덮고 거기 섰습니다. 저는 창으로 갔습니다. 아침 열 시쯤 되었든지, 좀 넘었든지 그럴 겁니다. 저는 양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주 하나님,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게는, 오늘이 이상한 날입니다. 저는 미칠 것 같습니다."

저는 말하길, "주님,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이 주신 말씀이라면,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자, 이것은 좀 어린 애짓으로 들릴 겁니다. 저는 성경을 들고, 펼쳤습니다. 다시 동일한 성경 말씀이 나왔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하러 한다고 말하고 로마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말씀을 행위로써 받아들이려 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6 어, 그 이후로, 굉장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 보십니다.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부터는, 다음 십오 분 내지 이십분 동안, 여기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단 한 번도 그 환상들은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잠시 성경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보시면, 계시록 10장에서. 자 이 말씀을 드리죠. 그 환상이 성경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오직 성경에 의해서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함께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 테이프를 들으시는 분들, 반드시 제가 말하는 식으로 이 말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아주 오해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서둘고 계십니까? [회중이 “아뇨”한다—주] 좋습니다. 그제...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조용히 계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습니다.

77 자, “일곱째 천사가...” 자, 선생님들, (제가 제목으로 삼은대로) 이것이 종말의 징조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때가 몇 시가 됩니까? 지친 싸움꾼이, 밤새도록, 일어나서 시계를 틀고, 그게 어떤지 보기 위해서, 불을 켜고. 저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빛을 켜게 하소서.”입니다. 아실 수만 있다면, 저는 굉장히 힘든 자리에 서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이제, 테이프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이해하십시오. 저는 모릅니다. 저는 노력할 것입니다. 어제, 제 지하실 방에 앉아 있는 저에게 온 것은. 저는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그저 제가 마루를 거닐고 있던 곳에서, 제 마음에서 일었던 것입니다.

저—저는 내려가서, 잠시 떠나 찰리와 함께 와서, 헤어지기 전에, 하루 그와 함께 사냥을 하러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78 말씀드리죠, 제가 서부로 간다는 것은, 이 성막을 떠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은 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교회입니다. 이곳이 제 본부입니다. 이곳이 제가 머무는 곳입니다. 저는 환상으로, 제게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갈 뿐입니다. 아들, 빌리 폴은 제 비서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제 사무실은 바로 여기 이 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이 끝나면 저는 일곱 인을 설교하러 여기로 올 것입니다. 제가 만들고 있는 설교 테이프들도, 바로 여기 이 교회에서 제작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저는 세상에 있는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도 더욱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믿고, 배고파하고, 듣고 매달리는 사람들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제게는 집과 같은 곳입니다. 이 곳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꿈들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음식이 있던 곳을, 아시겠죠.

자, 하지만, 저는 장래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장래 일을 주관하시는지는 압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79 자, 하나님, 제가 틀리다면, 절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당신의 뜻이 아닌 어떤 것을 말하면, 제 입을 막아 주소서.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뿐입니다, 주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소서; 단지 인상을 받아.

제가 생각하기에 그 해석이 즉시 오지 않은 이유는, 그것은 저를 위해서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만일 그게 성경적이라면, 다만 성경이 그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형제님, 자매님, 저는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아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무엇인가 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하나님에 대해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은 심지어 제가 선지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선지자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제 감정은 이렇습니다. 작년에, 저는 말하길, “저는...제가 본 유일한 일은, 모든 나라에서 부흥이 끝났습니다, 아니, 이 나라에서 말입니다.” 저는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갔습니다. 오, 그건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회를 잘 가졌고, 많은 군중들이 모였지만, 그래도 적중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올 해, 저는 선교 여행을 떠날 겁니다. 가능한 빨리, 저는 아프리카, 인디아로 갈 것이고, 가능하면 다음 선교 여행 때는 전 세계를 돌 것입니다.

만일 그게 통하지 않는다면, 저는 물도 음식도 먹지 않을 것이고, 저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저 응답하실 때까지 머무를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더이상 계속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여기 응답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주님께서 절 변화시키실 때까지,”

80 여러분 삼 주 전에 말씀드린, “밖에 서서, 회중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환상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모두 다 지난 주 일요일에 여기에 계셨습니다. 일요일마다, 테이프를 가지고 계신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그 테이프를 만들 때 계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이 구절들을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켜 보십시오. 말해진 모든 것들도, 이것의 예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해석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이게 그겁니까?하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81 저는 계시록 10장의 “일곱째 천사”는 계시록 3:14의 일곱째 교회 시대의 사자라고 믿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는 곳을 보십시오. 자, 이 사람은 일곱째 천사였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7절입니다)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라

자, 보십시오, 이것은 천사였습니다. 그건 일곱째 교회 시대의 천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곱째 교회 시대의 “일곱째 천사”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천사가 누구...어디에 있는지 보고 싶으시면, 알아보십시오, 계시록 3:14입니다, 그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냄을 입은 천사”입니다.

82 자, 여러분 전에 그것에 대해서 전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천사들과 그 교회 시대들을. 자, 여기서,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일곱 인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일곱 인은, 이번에 올 때, 기록된 일곱 인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일곱 인은 일곱 교회 시대의 일곱 천사들의 표명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책의 뒷부분에는 다른 일곱 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밖입니다, 잠시 후에 그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자,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여러분 일어서서, 자리를 바꾸고 싶습니까? [회중이 “아뇨”한다—주]

83 자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계시록 10:7의 일곱째 천사는 일곱째 교회 시대의 사자입니다. 아시겠죠? 자 잘 보십시오. "...의 날에" 자 여기를 보십시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리라...

자, 소리를 낼 때, 이 사자, 여기 일곱째 천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의 메시지를 소리내고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의 유형을 보십시오. 자, 그것은 첫째 천사에게,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둘째, 세째, 네째, 다섯째, 여섯째 천사에게가 아닙니다. 그러나 일곱째 천사가 이런 유형의 메시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메시지의 유형을 보십시오,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끝내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는 모든 이들 조직들과 교파들을 통해서, 느슨해져 있던 모든 비밀들을 묶을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는 그것들을 다 모아서 전 비밀을 끝냅니다. 자, 그게 성경에서 말한 것입니다, "기록된 책의 비밀을 이루리라."

84 이제 몇 가지 이 비밀들을 열거해 봅시다, 적고 싶으시다면. 먼저, 저는 여기 마태복음 13장에서, 스코필드가 말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것들을 좀 적고 싶으시다면, 스코필드 성경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그가 그 비밀들 중 몇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읽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예수의 제자들)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비밀들, 여기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의 비밀은 성경입니다, 전에 감춰진 진리가 이제 신성하게 계시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계시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적인 요소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더욱 큰 비밀들 그런데 그 위대한 비밀들은:

85 일 번,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말한 말씀입니다. 13, 마태복음 13:3절로 50절입니다.

이제, 두번째 비밀은 이 시대 동안에 이스라엘이 소경되어 있는 비밀입니다. 로마서 11:25, 거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세째, 세번째 비밀은 이 시대의 종말에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이 변화하는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과 또 데살로니가 4:14절로 17절입니다.

네번째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한 몸인 신약 교회의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3:1절로 11절, 로마서 16:25-26이고 또 에베소서 6:19과 골로새서 4:3입니다.

다섯째 비밀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5:28절로 32절입니다.

여섯째 비밀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갈라디아서 2:20, 그리고 히브리서 13:8, 그리고 그런 여러 말씀들.

일곱째 비밀은 하나님, 곧 신성의 총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 모든 신성한 지혜가 총만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경건이 인간에게 회복되었습니다.

아홉번째 비밀은 데살로니가후서와 등등에서 나오는 불법(죄악)의 비밀입니다.(Eng.p. 37)

열번째 비밀은 계시록 1:20의 일곱 별들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다 알아보았습니다, "일곱 교회의 일곱 별은, 일곱 사자들이라," 등등.

그리고 열 한번째 비밀은 음녀, 비밀 바벨론입니다. 계시록 17:5-7입니다.

86 그건 이 천사가 마무리할 비밀들 중 몇 가지입니다, 모든 "비밀," 하나님의 모든 비밀들. 그리고 또 다른 것:

제가 이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저의 말을 언급하는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인용해서.

뱀의 씨,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감춰져 있던 비밀이었습니다. 은혜가 바로잡았습니다; 불명예가 아니라, 진짜, 진실한 은혜가.영원하고 불타는 지옥같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은 수백년 동안 불에 탈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결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비밀들!

성령 세례의 비밀, 감흥이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직접 전에 하셨던 동일한 일을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비밀입니다. 물 세례의 비밀. 극단적인 삼위일체론은 물 세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직함들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신성의 비밀은 이 번에 교회가 받게 되었던, 계시록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 안에서 성취됩니다. 또다른 비밀들이 있습니다.

불기둥이 돌아왔습니다. 아멘! [브래넘형제가 손뼉을 세 번 친다—주] 그게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87 오, 그 비밀들을 우리는 계속 열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었던 그 불기둥을 보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을 내리쳤던 그 동일한 불기둥; 동일한 권능으로 오신 동일하신 분, 동일한 일들을 행하고, 동일한 말씀을 계시하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성경과 함께 머물면서.

나팔 소리는, “복음”의 나팔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나팔을 부는 것은, “말씀 전쟁을 위해서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적고 계십니까? 말씀 전쟁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 말씀도 적고 싶으시다면, 고린도전서 14:8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그리고 그게 성서적인 소리, 입증된, 하나님의 말씀의 입증이 표명된게 아니라면, 우리가 말세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일 그게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믿고 있지만, 전 자연적인 영역은 그분을 믿고, 모든 교회가 이런 일로 주님을 믿고 있는, 그의 이적들과 기사들을 부인한다면, 우리가 준비할 방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88 누군가가 도표를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다 그렸는데; 누군가가 와서, 다른 일들, 이 사람과는 다르게, 이런 것을 다 그렸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이것이 말씀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책들도 쓰고, 그와 같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활의 권능으로 오십니다! 누가 그것에 반대하는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면 그는 어제에 행하시던 일을 그대로 행하십니다,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그게 이 천사가 하게 되어 있는 일인데, 그들 비밀을 가지고, 사람들이 남겨두고 간 느슨한 끝들을 가지고.

보십시오, 만일 그게 불분명한, 비성경적인 소리를 내면, 누가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팔이, 보셨습니까, 각 시대마다, 제가 다가오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린대로, 나팔이 하나 울렸고, 인이 하나씩 떼어졌습니다. 그런데 나팔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만일 그게 성경적인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 말을 놓치지 마십시오.

89 보십시오, 각 교회 시대에는 그 사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바울은 첫번째 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번째 나팔이 울리자, 첫째 인이 떼어졌을 때. 바울은 우리가 알아본 대로, 첫번째 사자였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죠? (무엇?)에게 전쟁을 선포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메시아의 표적을 믿지 아니한데 대해서 정통파 교회에게 선포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그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바울은 그 시대의 끝에서 왔습니다. 다른 모든 사자들도 시대의 끝에서 옵니다. 이런 일들이 나올 때는 말세에 입니다.

바울은, 성경들을 알고 있었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저기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 회당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늘 그 곳에서 내쫓겼습니다. 마침내, 그는 신발에서 먼지를 떨어내고 이방인들에게로 향했습니다.

90 그게 뭐였습니까?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천사, 곧 사자는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서 있습니다! 오, 세상에! 이제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한 해석을 가지고, 그들 모든 회당들을 강타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다음 교회 시대의 사자인 이레뇨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 마틴, 다음 교회 시대에, 그들은 니콜라당의 교회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를 강타했습니다. 성 마틴은 그의 시대를 강타했습니다.

그 다음에 루터, 다섯번째 사자인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카톨릭 교회를 강타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성체를 바닥에 던지고, 걸어 나가서 그 카톨릭 교회를 강타했습니다. 그 나팔은 옳게 소리를 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회중이 “아멘”한다—주]

91 요한 웨슬리가 영국 국교회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부흥회를 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씨로 갔습니다. 하지만 요한 웨슬리는 그 두번째 은혜의 사역의 메시지인 성화를 가지고 일어서서 전쟁을 위해준비된, 복음의 나팔을 가지고 그 영국 국교회를 강타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는 라오디게아 시대에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교파를 만들었습니다; 감리교회, 침례교회, 장로교회, 루터교회, 오순절 교회. 우리는 와서, 이 시대를 강타하고, 그들을 죄악에서 돌아킬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만일 모든 시대를 통해 내려오면서, 그런 경향이 되어왔다면, 하나님이 오늘 날 그의 경향을 바꾸실까요? [회중이 “아뇨”한다—주] 하나님은 그것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기적인 걸음걸이 그대로 걸으셔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사자는 일곱째 천사였는데, 모든 비밀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마무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92 보십시오, 일곱째 천사는 라오디게아, 부유한 교회를 강타할 예정이었습니다. “나는 부유하고,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는 말하길, “너희는 비참한 자이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도다.” 그게 그의 메시지였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입증된 말씀이 그 사이를 움직여 가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증명할, 주께서 가라사대를 가진 겁낼 줄 모르는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그가 오면, 그는 그 시대들을 강타할 것입니다.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는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에게 대적하게 할 것입니다. 정말로, 그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다른 시대에서도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서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건 동일해야만 합니다.

93 이제,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는(이룰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이죠, 전에, 진리의 전쟁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비밀을 끝낼 것입니다.

루터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의롭게됨(칭의)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좋습니다. 또 요한 웨슬러라는 이름의 사자가 성화를 가지고 옵니다. 웨슬러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다음에는 성령 세례를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놓고는 처음에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형식주의로 곧장 돌아가 버렸습니다.“그는 알파요 오메가로 보이더라,” 그의 손은 이렇게, 이렇게 놓여 있고, “처음이었 나중이었습니까.”

94 그의 영이 오순절날 내렸고 그 무리를 총만케 했습니다. 교회는 암흑 시대에 이를 정도가 될 때까지, 점차 어두워갔습니다. 일곱 금 촛대, 일곱 교회 시대는, 마지막 것은 주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졌습니다. 그것은 카톨릭 교회의, 암흑 시대의 거의 수천년이었습니다. 루터는 다음 빛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말씀으로 조금 더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 빛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다음 빛은,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은 처음에 했던 것처럼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행했던 동일한 엉망진창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말 뜻을 아시지 않습니까?[회중이 “아멘”한다—주]

95 자 잘 보십시오. 거기에는 상실된 진리가 많이 있습니다, (왜죠?) 다른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타협을 했던 곳에서. 하지만 이 일곱째 천사는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느슨한 끝을 모아서, 그것들을 모두 모읍니다. 그가 소리를 낼 때,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 하나님, 그를 보내소서. 감춰진 비밀들 모두가 이루어질 때는 그가... 그것은 그에게 계시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만일 이것들이 감춰져있는 비밀들이라면, 그 사람은 선지자여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쪽 훑어보면서 마지막 시대에 올 그 선지자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위대한 엘리야일 것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회중이 “아멘”한다—주] 왜냐하면, 신학자들에게도 감춰져 있던 이들 비밀들은 계시되어야 할텐데; 하나님에게. 그런데 말씀은 오직 선지자에게만 옵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는 약속된대로, 두번째 엘리야일 것입니다. 오, 세상에! 그가 가지고 올 메시지는 비밀들일 것입니다, 모두, 이런 모든 일들.

96 우리는 물 세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온통 뒤섞였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분은 물을 뿌리고; 어떤 분은 물을 붓습니다. 어떤 분은 “성부 성자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것을 가집니다. 어떤 분은 세 번 앞으로 세례를 주고; 왜냐하면, 한 번은 “성부” 하나님께, 또 한 번은 “성자” 하나님께, 또 한 번은 “성령” 하나님께. 또 어떤 분은 말합니다, “당신들은 틀립니다. 뒤로, 세 번 세례를 주어야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오, 얼마나 뒤죽박죽입니까!

하지만 모든 것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므로,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느니라.” 성경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말고 다른 방법으로 세례를 받은 곳은 아무데도없고, 한 구절도 없습니다. 새 교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중 어떤 교회도 한 번도 물을 뿌리거나, 퍼붓거나 그런 식으로 세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건신조와 그런 겁니다. 진리의 전쟁에서, 그 끝들은 잃어버려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 그것들이 회복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회복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그것을 알아 보았습니다, 신부 나무.

97 그것은 선지자가해야할 일입니다. 성경은 그가 여기 오리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말라기 4장은 그가 여기 오리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표명될 것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입증된 하나님의말씀을 볼 것입니다.

소수만이 그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이, 인자의 임할 때에도 그러하리라.” 누가 구원을 받았죠? 다섯 영혼이... 롯의 시대에, 실제로는 세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시작은 했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자의 임할때에도 그러하리라.” 그 때에는 아주 소수만이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을것입니다; 비밀 중에 하나는, 교회가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롯이 구원을 받았을 때, 롯이 밖으로 구출을 받아 나오게 되었을 때; 노아는 위로 들림을 받았고; 교회도 역시 들림을 받습니다. 한 사람은 들어갔고; 한 사람은 밖으로 나갔고; 한 사람은 위로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그건 정확합니다, 완벽하게.

말씀이 옵니다.

98 “안에 쓰여진 책,”은 그때 이, 이런 모든 비밀들이 소리 내는 것을 끝냈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것을 다시 한 번 읽어서, 여러분이 확실히 알게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일곱째 천사가(마지막 천사입니다)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라...

자, 무엇이 “하나님의 비밀”입니까, 그 비밀 중 한 가지? 바울은 말하길, 디모데전서 3장에서, 거기라고 믿습니다, 말하길,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우리가 그분을 만졌고, 보았도다) 영광 가운데서 들리우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여기 이 땅에서 입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위대한 비밀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다 해결되었습니다.“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아니라; 세 직분을 가지신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때는, 아버지의 신분이셨고, 그리스도 때에는, 아들의 신분이셨고; 이 경륜 하에서는, 성령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세 가지 경륜입니다; 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비밀은 지금은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그래야 한다고말했습니다.

99 며칠 전, 보았는데, 그들이 말하던 것에서, 과학은 제 의견에 맞서려 하고 있습니다, “이브가 사과를 먹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하고 제가 말했을 때 말입니다. 이제 그들 과학은, 며칠 전 신문에서 보셨을 겁니다, 머리가사에다

크게, “이브는살구를 먹었다.”고 실었습니다. 말도 안됩니다. 그게 이브를 속였겠습니까? [회중이 “아뇨”한다—주]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들은 그저...

그건—그건 가인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시죠, 가인은 똑같은 것을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아벨은, 그에게, “그건 피였다”라는 계시가 있었고, 그래서 그는 피를 들고 왔습니다. 오 하나님, 이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100 “안에 적혀진 책은” 이 천사가 끝날 때, (이것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천사의 메시지가 끝났을 때에 완성됩니다; 신성에 대한 비밀과 뱀의 씨에 대한 비밀과, 이런 모든 것들의 다른 여러 비밀들이 말입니다.

영원한 아들 신분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영원한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영원한 결코 시작하지도 않고, 결코 끝나지도 않고, 아들은 태어난 신분인데 말이죠? 그게 말이 됩니까?

지옥은 지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영원한 지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불타는 지옥은 믿습니다. 물론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멀하기 위한 겁니다. 성경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시겠죠? 아시죠, 여러분은 둘째 사망으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첫번째 죽음은 육신의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모든 것이 끝나는, 영적인 사망입니다. “범죄하는 영혼마다 죽으리라.” 여러분은 어쩌면 수백년...수천년 간,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지옥은 지음을 받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음을 받았으면서 영원할 수 있습니까? 있다면... 성경은,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옥이 지음을 받았다면,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영원한, 영원한 것은 결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요, 하나님의 소생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브래넌형제가 설교단을 세 번 두드린다—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는 것처럼 죽을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게 오게 하소서! 할렐루야! 어차피, 이 늙은 질병집(pesthouse)에 대해 지쳐버렸다고나 할까 그러니까요.

101 보십시오, “기록된 책,” 남겨진 이런 모든 느슨한 끝의 비밀들을 끝낼 때, 그들이 싸워온 싸움을 통해서, 루터가 싸웠고, 웨슬리가 싸웠고, 오순절들이 싸웠죠. “하지만 하나도 또 오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소리내는 날, 이 모든 비밀들이...” 단일성설교는 예수 이름쪽으로 흘러갔고, 삼위일체로는 성부 성자 성령쪽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했던 그대로, 똑같이 말입니다; 그들은 둘 다 틀립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길의 중간에, 성경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주의 천사가!

102 계시록 5:1을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손에 책이 있으니 안에 썼고(기록은 안쪽에 있었습니다) 밖에는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책 안에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뒷부분에는, 그 책 뒤에는 일곱 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책에 쓰여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책 안에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 계시자,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책에는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일곱째 천사의 음성이 있는 날에, 이 안에 기록된 모든 비밀들은 이루어지리라.” 그것은 그 시대에, 드러날 것입니다.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회중이 “아멘”한다—주] 제 얘기 듣고 계십니까? [“아멘.”]

그때가 계시록 10장의 일곱 음성들이 계시될 때입니다. 그 책이 완성될 때, 한 가지 밖에 남지 않은데, 그 책의 뒤에 쓰여진 일곱 신비한 우리 소리입니다, 요한은 그 것을 기록하지 못하게 금지당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 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서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아시겠죠, 이제 이것을 보십시오.)...그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왼 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리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잘 보십시오.)

일곱 우리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무슨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를 들었습니다. 그는 기록하려고 했습니다....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103 음성들이 나온 곳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들. 하늘에서가 아닙니다; 땅에서 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늘에서 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땅에서 발했습니다....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인봉하라),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것은 뒷면에 있습니다, 책이 완성되었을 때. 요한은 결코, “앞 면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뒷면,”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다 되고, 끝난 후에. 그 때, 책에 붙어 있던 일곱 우리의 음성들은 유일하게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책에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오, 세상예! 저는 사람들이 실제로... 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흘려듣지 마십시오. 이 번에는, 제발 놓치

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떠나려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들으신다면, 경청하십시오!

이 인들은 책의 뒷면에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낼 때, 그 책에 기록된 모든 비밀들은 끝내질 것입니다.” 즉시, 펼쳐졌다가 안에 쓰여진 것이 닫혀진 책은, “하나님의 비밀들은 끝내지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들입니다; 교회가 가는 것과 이런 다른 모든 일들. “비밀들은 끝납니다.”

104 그 일곱째 천사가 모든 비밀을 소리낼 때, 그 일은 끝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든지간에, 그가 누가 되든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리라

그 모든 것들, 마치, 오, 로마는 음녀이고, 로마를 따라 교파를 만들은 모든 개신교 교회들은 음녀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 선지자가 말한 그 모든 비밀들은, 여기 마지막 때에 여기서 계시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시대에서 이 일곱째 천사가 일어나 진짜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그것은 반대될 것이고,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는 영감을 받은 선지자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머리가 회어지고 미쳐버릴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이브가 사과를 먹었다고 믿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 사람들이 전통(유전)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선지자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진정한 해석을 가지고, 그에게 옳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은 그런 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105 자, “그의 소리가 나갈 때,” 자, 그것은 주께서 가라사대입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아시겠죠. 그가 메시지를 소리내고, 전쟁을 선포하면; 바울이 다른 사람들처럼, 유대교에 전쟁을 선포한 것처럼, 루터와 웨슬리가, 조직에 대항하여 한 것처럼. 그는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가 그 소리를 내면, 여러분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증될 받을 것이니까.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죠. 그가 소리를 내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부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그를 보내소서!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106 자, “그가 소리내기 시작하면, 비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때가 계시록 10장의 일곱 인의 음성을 위한 때, 계시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회중이 “아멘”한다—주] 그 책의 모든 비밀이 끝날 때는! 성경은 여기서, 그가 비밀들을 이루리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시대에 살던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의롭게됨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잠시 갔습니다. 성화! 그들은 이것을 위해서 싸웠고, 저것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죠? 다시 돌아서 그 안으로 들어가 조직했습니다, 똑같이. 오순절교, 침례교, 장로교, 루터교, 모두 다 똑같이 행했습니다, 돌아서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성경은 계시록 17장에서 말하길, 그것이 그들이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늙은 어미 음녀와 그녀의 딸들이, “비밀 바벨론.”

107 성경은 여기서, 그것이 펼쳐지게 될 비밀들 중 한 가지가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개신교들, 창녀들, “영적인 간음을 행하면서,” 인간이 만든 교리의 “죄악의 잔”을 가지고 교파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명하기 위해서 값없이 흘러나오는, 보혈로 가득찬 샘에서 사람들을 떼어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후원하실 것입니다, 전에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이루어지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남았는데, 그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일곱 우뢰입니다. 그것은 헛되이 천둥 소리를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놀기 위해서 뭔가를 행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놀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네”와 “야호”입니다. 하나님은 속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농담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진정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뭔가가, 어떤 의미가 없다면, 아무 말도 하시지 않습니다.

108 그리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 있는, 일곱 우뢰는 비밀입니다. 성경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회중이 “아멘”한다—주] 왜, 그 때 거기에는 뭔가 감춰진 비밀이 있는 겁니다. 흠! 그게 뭐니까? 일곱 우뢰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기록하려고 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적지 말라. 그것을 인쳐라. 그것을 인봉하라. 그것을 책의 뒷면에 부쳐라.” 그것은 계시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비밀들입니다.

자, 우리는 성령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그것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관계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제 평생, 그 말씀에찬성한 설교자를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109 아시죠, 시카고에서, 그때 우리는 그들 앞에, 약 삼백 오십 명의 설교자들 앞에 섰습니다. 여기 시카고에서 오신 여자분들, 여러분은 거기 계셨고, 그 일에 대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주님은 삼일 밤 전에,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시길, “그들은 너에게 함정을 파놓을 것이다.” 말씀하시길, “여기 창가에 서라 내가 보여주겠다.”

말씀하시길, “칼슨씨와 타미 힉스가 내일 아침에 너를 만날 것이다, 아침 식사를 하러 가자고 할 것이다. 너는 타미에게 머물라고 말해라. 하지만,” 말씀하시길, “그것은 이런 모습일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장소에서 그 집회를

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라. 다른 장소에서 집회를 열 것이다.” 말씀하시길, “두려워 말라. 내가너와 함께 있겠다.” 저에겐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순복음 실업인회의 회장인 칼슨씨가 와서 말하길...전화를 걸어, “브래넘형제, 저는 당신과 아침 식사를 하러 가고 싶습니다.” 했습니다.

저는 말하길,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타미 학스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타운 앤 컨트리 식당엘 갔는데, 그는 말하길, “어, 브래넘형제님,” 그는 말하길, “오, 이것은 하나...”

저는 말하길, “타미, 내 부탁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물론이죠, 브래넘형제.”

저는 말하길, “제 대신 설교를 해 주실 수 있을는지?”

그는 말하길, “오, 못합니다.”

저는 말하길, “왜죠? 저는 칠학년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저는 말하... 저는 심판관(umpire)이라고 해야 되는데 제국(empire)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아시겠죠? 저는 거기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는 대 시카고 성직자연합회가 있을 것입니다. 타미, 칠학년 교육을 가진 제가 어떻게 그들 앞에서 얘기하겠습니까? 당신은 신학박사잖습니까.” 저는 말하길, “당신은 얘기할 줄도 알 겁니다. 전 모릅니다.”

그는 말하길, “브래넘형제,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왜죠? 저는 당신의 부탁을 많이 들어드렸는데요.” 저는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칼슨형제님이 말했습니다, “오, 브래넘형제, 그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왜죠?”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어, 우리는, 어-어-어-어...”

110 저는, “웬지 아세요? 당신들은 이유를 알고 있죠, 하지만 제게는 말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저를 위해서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저는 말하길, “칼슨형제, 당신은 그 호텔을 예약해 두셨죠, 전에 집회를 열었던 곳 말이에요.”

“네.”

저는 말하길, “당신은 그 장소를 얻지 못할 겁니다.”

그는 말하길, “글쎄요, 브래넘형제, 이미 예약금을 걸어 두었는데요.”(Eng.p. 48)

저는 말하길, “웬 걸었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모임은 거기에서 열지 못할 겁니다. 그건 초록색 방입니다. 우리는 갈색 방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 뒤 구석에 있을 것입니다. 미드박사님은 제 오른쪽에 앉을 것입니다. 그 흑인 부부는 여기 앉을 것이고, 등등. 제 오른쪽 끝에는 한 불교 승려가 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을지도.

그리고 저는 말하길, “타미, 당신은 모든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대 시카고 성직자 연합회는 제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세례'에 대해서 도전할 것입니다. 대 시카고 성직자 연합회는 방언을 말하는 것, 성령의 증거'에 대해서도 도전할 것입니다. 뱀의 씨'에 대해서도 도전할 것이고, 은혜'에 대한 설교.”

타미는 쳐다보고, “자비를, 맏소사!” 그는 말하길, “전 가지도 말아야겠군요.”

저는 말하길, “아닙니다, 오십시오.”

111 다음 날, 예약금을 받았던 사람이, 예약금을 그에게 돌려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관현악단이 옵니다. 그들을 예약을 해 두었는데, 그걸 그만 잊어버리고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방을 관현악단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그 방을 얻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운 앤 컨트리로 나갔습니다.

그날 아침, 걸어 들어갔는데, 그들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제가 거기 뒤에 놓여 있는 책상 뒤로 가서 앉아 있는데, 기다리면서, 그들이 조반을 한 후에, 저는 그들을 이렇게 둘러 보았습니다. 우리는 한 방에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나와서, 거기 앉아 있는데, 거기에는 대 시카고 성직자 연합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둘러 보았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를 철학박사, 법학박사, 등등으로, 그런 온갖 학위 박사로 소개했습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들이 끝마칠 때까지 다 들었습니다.

112 칼슨형제님은 일어났습니다. 그는 말하길, “신사...”여러분 모두 행크 칼슨을 아십니다. 거기서,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어, 여러분은 여기에 녹음테이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그 테이프를 구입하길 원한다면, 여기에 있습니다. 형제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신사들,”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하길, “다음으로, 브래넘형제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말하길, “여러분은 모두 다 그가 전하는 교리를 찬성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삼 일 전, 우리는 어떤 곳에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제게 오늘 아침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말을 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에 서 있지 않는 겁니다. 그는 제게 여러분 모두가 그의 교리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저 곳을 취소해야하고, 여기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미드박사님

과 이 사람들이 어디에 앉을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그는 말하길, “여러분은 그와 의견을 달리 하실지도 모릅니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죠, 그는 자기 생각을 전혀 겁내지 않습니다.” 그는 말하길, “자, 브래넬형제님, 말씀하시죠.”

113 저는 말하길, “시작하기 전에...”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읽었던 곳을 읽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환상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하길, “이제 이것을 결정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모두 다 신학박사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혼자 서 있습니다.” 저는 말하길,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우선 그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을 들고 여기 제 곁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르친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지.” 저는 말하길, “여기 제 옆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반증하십시오.”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길,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여기 제 옆에 서시지 못하겠다면, 제 뒤에서 뭐라고 하지마십시오.” 그들이 두려워 하는 건 제가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그들은 압니다, 만일 그가 제게 미리 말씀하실 수 있다면...그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영리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서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114 아-아.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여러 번, 그런 때를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게 그렇게 위대하다면, 그게 너무나도 진실한 것을 알고 있다면, 왜 그렇습니까? 저는 어디로 가든지, 그것을 테이프에 녹음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답게, 어떤 형제와도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무와도 논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 중 어느 것이라도 반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교재를 가지고가 아닙니다; 아무개박사님이 말씀하신 것, 성 아무개가 말한 것으로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길 원합니다. 그게 근본이니까요.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길 원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15 자 보십시오. 일곱 음성들이 ...때가 되었을 때. 그때는 계시록 10장의 일곱 음성들이 계시되어질 때가 그 책이 끝날 때입니다. 자 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저는 더이상 여러분을 오래 붙잡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쳐가게 하고 있음을 압니다; 여기 시간은 열시 이십 분 전이군요. [회중이 “아닙니다. 더 말씀하세요!”한다—주] 이제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저는 서 있으면서, 여러분 모두가 서로자리를 바꾸고 그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고쳐져서 우리 다리에 쥐가 나지 않아도 되게 된다면 기뻐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이라도 설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보세요. 일곱 음성은 우리가 크게 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 제가 틀렸다면, 절 용서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합니다. 이 음성이 나왔을 때, 천둥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일곱 교회시대를 따르던 일곱 인이, 첫째 인이 떼어졌을 때, 우리 소리가 있었던 것을 보셨습니까? 책에서 첫 인들이 떼어졌을 때, 거기에는 우리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깥 책의 이 첫째 인이 똑같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회중이 “아멘”한다—주] 하나님은 자신의 프로그램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116 계시록 6장을 펴봅시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뢰소리 같이 말하되 와 보라 하기로

자, 결코 또 다른 우리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인이 떼어지자, 하늘에는 반시 동안 침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인이 떼어지자, 큰 우뢰 소리가 났습니다.

오, 교회에, 그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멀리 와 있을까요? 친구들이여,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저는 그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폭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펼친 성경 앞에서, 저는 지금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온 땅을 흔들었던 폭음! 그런데 첫째 인, 성경에서 떼어진 일곱 중에, 그것이, 단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뒤흔든 폭음;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뒷면에 있는 인들이 떼어진다면, 그것도 우리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있었습니다, 첫째 인, 인이 우리였습니다. 그 때에 그 나팔이 열렸습니다. 나팔은 물론, 오순절날에 불렸습니다. 그것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117 자, 만일 그 환상이 성경적인 환상이었다면; 제가 지난 토요일 아침에 보았다고 말한 환상. 그것은 일 주 전쯤 일이었습니다. 만일, 자 여기서 명심하십시오, 만일 그 환상이 성경적인 환상이었다면, 그것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같은 성경말씀의 연속이어야만 합니다. [브래넬형제가 말을 멈춘다—주] 저는 그게 깊숙히 새겨지도록, 그냥 기다렸습니다. 만일... 제가 본 이것은, 그 환상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무척 겁이 납니다. 우리가 다 써버렸을까요? 우리가 종말에 있습니까? 명심하십시오, 이 천사가 말하길,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는, “시간이 더이상 없으리라.”고 맹세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이해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말하길, “어, 그것은 폭음이 났던 것 같습니다.” 형제님, 주님은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순간에 오십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마지막으로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118 이제 그게 명확합니까? 첫째 인이 떼어졌을 때, 그 책 안에 있던 인들, 소리났던 이 비밀들은: 의롭게 됨, 성화, 로마 카톨릭 교회, 개신교 교회! 모든 그들의 작은 싸움들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풀어진 끝을 남겨놓았을 때, 일곱째 천사는 와서 그것들을 다 모아서 설명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나서 그는 끝냅니다. 일곱 우리가 발합니다. 요한이 기록하기 시작했을 때; 말하길, “그것을 적지 말아라. 그것을 인쳐라.” “그런데 첫째 인이 떼어졌을 때,” 그 책의 안쪽에 있던 인들 중에서, 그것은 우리 소리 하나와 함께 열렸습니다. 아!

만일 이것이 성경이라면, 그것은 다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성경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말씀이라도... 그건 마치, 여러분은 "연옥"과 그런 것들이 있다고 제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후원할 말씀이 없니까요.

119 여러분은 마카비책처럼, 그건 좋은 책일지 모르지만, 제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네 번째 책, 천사는 다니엘의 머리카락을 잡고, 말하길...그를 앉혔도다." 성경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흙으로 작은 새를 만들고, 다리를 붙여서, 휴우! 작은 새야, 날아라,'하고 말씀하셨도다,"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을 후원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놀리지... 번역가들이, 하나님은 번역가들이 그런 독단과 허튼 소리를 추가하지 않도록 지켜보셨습니다. 마카비 형제들은, 좋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았습니니다. 이것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 말씀에 더할 수도 없고, 그 말씀에서 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그걸 보탠다면, 그것은 나머지 성경 말씀과는 함께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육십 육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도 다른 말씀도 모순되지 않을 것입니다.

120 그 다음에, 만일 이것이 연속이라면, 이 마지막 나팔, 아니 이 마지막 일곱 우뢰의 소리를 위해서, 비밀들, 마지막 인들, 그것은 경쟁 아니 나머지 성경 말씀과 비교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만일 거기 있는 첫번째 것이 큰 우뢰 소리와 함께 열렸다면, 뒷면에 있는, 두번째 것도 역시 그럴 것입니다.

일어난 일을 잘 보십시오. 만일 그 환상이 성경적이라면, 그것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아니면 똑같은 성경 말씀으로 여러 번.

121 보십시오, 계시록, 3절과 4절에서, "일곱 우뢰." 일곱 우뢰는, 다음에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그때 (워쥬?) 그 함센 천사는 서약하기를, "시간이 끝났도다." 이 우뢰들이 소리를 발했을 때, 아시다시피, 다음에는 그 천사가...

좀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을 입고, 머리 위에 무지개를 쓴 천사." 왜,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아시죠. "한 발은 땅에, 한 발은 바다에 밝고, 손을 들고, 일곱 우뢰가 소리를 발할 때에,' 시간이 더 이상 없으리라(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비밀들의 사역이 끝나면, 만일 그것이 그들 일곱 비밀들이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어떻게겠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보잘것 없고, 작은 교회, 전능하신 분이 오셔서 그 백성들의 낮은 상태를 돌아보시다니!

여러분은 말하길, "오, 그것,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어떻게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은 다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때가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122 이들 별들은 저기 그들의 별무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니다! 그 천사는 와서 말하길, "요한이 구약을 마무리하여 그리스도를 소개하러 보냄을 받은 것처럼, 메시지는 느슨한 끝들을마무리할 것이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를 소개할 것이다," 마지막 시대의 메시지가. 보십시오, 그 함센 천사는, 서약하며, "시간이 더 이상 없으리라"고 맹세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을 너무 오래 붙들고 싶지 않습니다. 잠시 이것을 생각 좀 해 보십시오.

123 자 들어 보십시오. 이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렇죠? 다른, 일곱 교회의 일곱 천사들은 땅에 있는 사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천사는... 모든 메시지는 끝나쳐집니다; 일곱째 천사는 모든 것을 마무리 합니다. 이 천사가 와서,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교회 시대에 보냄을 받은 사자들처럼 땅에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끝났습니니다. 하지만, 이 천사는 다음의 선포를 가지고 옵니다. 천사라는 말은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빛기둥, 구름을 입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지개는 연약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한 발은 땅에, 한 발은 바다에 밝고, 더이상 시간이 없으리라'고 맹세하셨습니다."

124 선생님들,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일은 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다른 천사들은 사자들이었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 하지만 이 천사는... 이들, 말하길,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사에게,"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지상의 사자들에게; 보십시오, 교회에 파송된, 사람들, 사자들, 선지자들, 등등. 하지만, 이 천사는 땅에서 나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왜냐하면 그 비밀은 모두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이 이루어졌을 때, 그 천사는, "더이상 시간이 없으리라"고 말했다, 일곱 우뢰는 소리를 토해냈습니니다.

만일 그것이 우리로 어떻게 휴거의 믿음에 들어가는지 알게 하려는 것이라면 어떻게겠습니까? 그럴까요? 우리가 뛰어, 벽을 뛰어넘을까요?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려하고 있고, 이 늙고, 상처받은, 더러운 몸은 변화되려는 것일까요? 오 주님, 제가살아서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것을 볼만큼 그렇게 가까운 겁니까? 이것이 그 세대입니까? 선생님들, 나의 형제들이여, 시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125 시계를, 달력을 보고, 우리가 어떤 날에 살고 있는지 봅시다. 이스라엘은 지금 팔레스타인, 그들의 본국에 있습니다. 깃발, 다윗의 별이, (이천 년 전에, 네, 거의 이천 오백 년 전에), 가장 오래된 국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가지를 내거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세대는 죽지 않으리라, 없어지지 않으리라."

나라들이 무너지고 있네, 이스라엘은 깨어나고 있네,

선지자들이 예고한 징조들일세;

이방인의 날들은 찾고 두려움에 쌓여 있네;

“오, 흠어진 자여, 너희 땅으로 돌아오라.”

구속의 날이 가까왔네,

사람들은 두려워 떠네;

성령 충만 하라, 등을 정리하고 깨끗케 하라,

위를 보라, 너희 구속이 가까왔도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네,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하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그게 진리임을 아십니까! ...?...

그러나 우리는 사도들이 행하던 곳엘 걸으려네.

구속의 날이 가까왔네,

사람들은 두려워 떠네;

성령 충만 하라, 등을 정리하고 깨끗케 하라,

위를 보라, 네 구속이 가까왔도다!

126 여러분 중 누구라도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가까운지도 모릅니다. 그건 절 겁이 나게 했습니다. 오, 저는 충분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Eng.p. 54)

“시간이 더이상 없으리라.” 그는 시간이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형제들, 그게 바로 지금이 될 수 있을까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피라미드는 일곱 우리로 모자돌을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라미드 메시지를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모자돌입니다. 그게 어떻게 했죠? 우리가 우리 믿음에다 의로움과 경건과 믿음과 등등을 더했을 때; 성령께서는 각 개인의 모자돌이 되시고 인치셨습니다. 우리는 일곱 가지를 다 가질 때까지 계속 그것에다 더했습니다. 일곱번째 것은 사랑이었는데,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개인들이, 개인 위에 성령으로 꼭대기에 임하시고 인치십니다.

그러면, 만일 그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일곱 교회 시대가 있는데, 소리를 발한 일곱 비밀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들은 되돌리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이제 교회의 모자돌이 되기 위해서, 머릿돌이 옵니다. 형제님들, 일곱 우리가 그것을 뜻하는 걸까요? 선생님들, 우리가 그 시점에 사는 걸까요?

127 주니, 당신의 꿈에 대해서 말하고 싶군요. 보세요. 주니어는, 피라미드를 설교하기 몇 달 전에, 이 꿈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말할 겁니다, “꿈이 뭐길래 그러세요?”

느부갓네살은 꿈을 하나 꾸었고 다니엘은 해몽을 했는데, 이방인 시대의 시작과 마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도 어긋나지 않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위 위에 있던 기록은, 저는 그들을 위해서 그것을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흥분되었습니다. 그건, 수년동안, 이해되어 오지 않았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게 그것일까요? 그러면 보십시오.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는 공중에서, 꼭대기를 열었던 날카로운 기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흰 화강암이 있었는데, 그것은 해석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어떤 글씨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주니어. 저는 그것을 보기만 했고, 형제들에게, “이것을 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밤, 성취되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연구하고 있을 동안, 저는 서쪽으로 살짝 빠져나갔습니다, (왜죠?) 어쩌면 이것의 꼭대기에 쓰여있는 것의 해석을 알아내기 위해서 일 겁니다. 그럴까요?

128 그런데, 그 전날 아침, 그 폭음은, 절 흔들어서 이 건물 높이만큼 높게 공중으로 절 들어올려서, 천사들, 피라미드 형태로 온 일곱 천사들의 별무리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것이 소리난 그들 우리일까요? 그럴까요? 이것은 모두 해석되었습니다. 그의 꿈에 의하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일곱째 천사는 끝낼 것입니다, 일곱째 메시지가 끝낼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우리는.

그는 모자돌이 뒤집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많은 사람들은 계시될 일곱 인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이 계시록에 대해 쓴 책들을 읽어 보았지만,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은 뛰어넘어갑니다. 하지만 그게 거기에 있다는것을 여러분에게는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그게 그 일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만일 그 일이라면, 우리는 중대한 시간에 살고 있는 겁니다.

129 자, 잠시만요, 보십시오; 만일 그 일이 그렇다면, 이 바위들에 써 있는, 비밀이 끝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수 있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 안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게 기쁩니다. 저는 주니어의 교회와, 이 교회, 네빌

형제님의 교회, 그리고 그들 교회에 오시는 이 사람들에게, 그들은 여기 회중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마지막 날에는 꿈을 꾸리라.” 했습니다. 여기 그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십시오, 그것은 말씀과 비교가 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모르고, 폭음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영원에서 일곱 천사들이 나옵니다. 저는 말하길, “주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먼저 가서, 알아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만일 그 일이라면 어떨겠습니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이라면, 그건 아주 성경적에 가깝게 들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회중이 “아멘”한다—주]

130 보십시오. 다음에, 보십시오, 그 모자들은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서부로 갔다가, 돌아오라.” 아니면, 그건 이걸까요, 저에게 온 이 별무리 안에 있던 이 일곱 천사들? 제가 부활의 날에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은 지금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아니면, 이것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두번째 절정일까요? 이것이 교회를 위해서 오는 무엇에 속한 것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잠시 그것에 대해서 머무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움직여 나갈 것입니다.

그게, 그 피라미드는 (셋은 양쪽에, 하나는 꼭대기에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고, 그들은 갑자기 영원에서 떨어져 나온, 강력한 우리, 아니 일곱, 별무리, 일곱째 기간의 별무리 안에 있는 일곱째 천사일까요? 그럴까요?

이것이 머릿돌을 되돌릴, 우리들의 비밀일까요?

131 아시다시피, 그 피라미드는 한 번도 모자가 없었습니다. 머릿돌이 와야만 합니다. 그것은 거절되었습니다. 형제님들, 자매님들, 그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삼사 년 전, 제게 말씀하신 그 세번째 당김(Third Pull)일까요?

첫번째 당김은,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합니까? 저는 그것을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번째 당김은, 그는 말하길, “그러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당겼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건 테이프에 녹음되었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그는 말하길, “이제 세번째 당김이 올텐데, 그것은 설명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늘 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 보셨죠? 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제 교회에게는, 원가를 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느낍니다. 여러분이 직접 결론을 내리십시오.

132 자, 이것이 열리게 될, 그리스도를 모셔올 비밀, 교회에게 능력을 가져다 줄 비밀일까요? 아시겠죠, 우리는 이미... 우리는 회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초대 교회가 가졌던, 이적과 기사와 기적과 방언 말함과,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도행전에 쓰여 있는 것보다, 바로 여기, 이 작은 우리의 사람들, 여기 우리의 작고 작은 사역에서, 더 많은 일이 행해졌습니다. 전 세계로 따져보면 어떨까요? 아시겠죠? 사도행전에 적혀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이, 똑같은 일이! 죽은 자의 부활은! 명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단 세 사람만을, 죽은 자,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는 의사의 인정을 받은, 다섯 건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이보다 더 많은 일을 너희도 하리라.”

133 저는 킹 제임스 성경에는, “더 큰 일”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일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는 한 분 안에 계셨습니다; 지금은 교회 전체에 계십니다. 아시겠죠? “너희가 이보다 더 많은 일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만일 이것이 그 세번째 당김이라면, 위대한 사역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전 모릅니다. 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전 모릅니다.

보십시오. 세번째 당김은, 잠시 그것에 대해서 멈춥시다. 그 환상에서, 첫번째 날아온 것은 작은 전령 새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것은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의 손을 잡음으로써.

여러분 그가 제게 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네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면, 네가 사람들의 마음의 비밀을 알게 되리라.” 몇 분이나 그것이 여기서 선포되고, 전국에 퍼져 나간 것을 기억하십니까? [회중이 “아멘”한다—주]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멘.”] 정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길,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시겠죠? 그리고 그 일은 계속 될 것입니다.

134 자, 첫번째 당김은, 조그맣고, 조그만 새들이었습니다; 날아갔죠. 그들은 주님의 강령을 만나기 위해서 앞으로 날아갔습니다; 첫번째 메시지죠. 두번째는, 마음의 비밀입니다. 사람의 손을 잡고, 거기에 서서, 그들이 가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그들의 죄를 드러냈고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습니까? [회중이 “아멘”한다—주] 그리고, 그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증인되었고, 전 세계도 증인이고, 이 교회도 증인입니다.

제가, “천사를 보았는데, 그것은 타오르는, 에머랄드빛 불이었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고 “빌리, 정신차려요”하고 말했습니다. 사진기의 마법의 과학적인 눈은 그것을 찍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진리를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입증해 주셨습니다.

저는 말하길, “어둠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 검은 색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흰 색입니다. 하나는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입니다.” 그건 저 뒤에 붙여둔 사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조오지 제이. 레이씨가—레이씨가, “이 사진기의 기계적인 눈은 심리학을 찍지는 않을 겁니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 계십니까?[회중이 “아멘”한다—주]

135 보십시오, 첫번째 작은 비상은; 손입니다. 두번째는 좀 더 크고, 더 흰 비둘기였습니다; 마음의 비밀을 알리는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세번째 날아온 것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새들이 아니라) 천사들; 그건 말세입니다, 그건 그 전부입니다.

형제들, 지금이 그 때일까요? 지금이 그 때일까요?

이제 정말로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을 잘못되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묻겠습니다.

잠시 돌아갑시다. 이 교회는 그게 진리임을 압니다. 과학적인 세계는 그게 진리임을 압니다. 오늘밤,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는, 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많은 분들은, 그 음성이 소리를 내어, “요한이 초림의 메시지를 가지고 보냄을 입은 것처럼, 이것은 재림을 전할 두번째 메시지리라.”고 말했을 때 그 강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납니까? [회중 가운데 몇 사람이 “아멘”한다—주]

만일 그게 끝난다면, 요한은 어떤 일을 했죠?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바로 그분이다!”라고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

136 그 시각이 지금 이르렀습니까? 저는 이르렀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십시오”하고 말할 때일까요? 아니면, 말라기 4장의 때일까요, “자녀들의 마음을 우리 아버지의 믿음으로 돌리는 때”? 그것은 빈둥거리고 있고, 하나님의 비밀들과 기타등등을 이해할 수 없었던 교회를 바로잡을 정도로, 그토록 강력한 일들을 행할 폭음일까요? 그들이 그 강력한 폭음이 나가는 것을 보면, 그것이 성경이 말한 대로,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게 될까요? 아니면, 이것이, 그일을 했어야 했을, 이미 지나간, 메시지였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이것은 종말의 징조입니다, 선생님들. 아니, 이게 끝났다는 징조입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아주 성서적인 일입니다. 전 모릅니다.

137 거기에는 그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천둥같이, 폭음이 있었고, 온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진리를 말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이 일일까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준비를 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분의 신자들의 군대 안에 우리의 자리를 정하고,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늦은 때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절 압니다, 저는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여러분에게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시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일들은 그대로 일어나지 않았던가요?” 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이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전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하렵니다. 저는 겁이 납니다. 여러분의 형제로서, 저는 지난 주 토요일부터 겁에 질려 있습니다.

138 어쩌면 말세인지도 모릅니다. 무지개가 하늘에 펼쳐져 있고, 하늘에서, “시간이 더이상 없으리라”는 선포가 있는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합시다.

지금 풍성한 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합시다. 이제 그것을 사용합시다. 이 강단에서, 저는, 저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주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저는 제가 아는 최선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십니다. 하지만, 그 천사들의 우리가 그 땅을 휩쓸었을 때, 저는 마비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감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마치, 저는 방을 왔다갔다 했고, 척추도, 목뼈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마비가 되었고, 아무 느낌도 느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 손에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헤매었습니다. 저-저는 그저 방에 들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139 일요일에, 저는 여기에 설교하러 내려왔고, 설교를 함으로써, 제 자신을 거기서 흔들어 깨우려고 했습니다. 월요일에, 그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모릅니다. 선생님들, 전 모릅니다. 저는 제 형제인 여러분들에게 정직할 뿐입니다. 전 모릅니다.

지금이 때입니까? 사역...비밀이 다 끝났습니까? 소리가 이미 다 끝났습니까? 그게 정말로, 원가를 발하려고 하는 그 일곱 우뢰일까요, 그래서 함께 모인 작은 무리가 주님 오실 때에 휴거에 들어가도록, 휴거의 은혜를 받게 할 것입니까? “이는 우리가 변화될 것임이니라,” 그 천사들이 온 속도처럼 빠르게, “잠시 후에, 눈 깜빡할 사이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던 자들과 함께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저의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만일 이 일이 그런 일이라면, 주님, 전 모릅니다. 저는 그저 교회에게 말했을 뿐입니다. 주님, 만일 그 일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 주소서. 주님, 그 위대한 시간을 위해서, 우리로 준비케 하소서; 모든 시간의 역사나 모든 선지자들과 현인들은 그 시간을 기다려 왔습니다.

주님, 전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릅니다. “주님, 오시지 마십시오”라고 저는 말하지 못합니다. 저는 세상의 상황을 바라볼 때,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부끄럽습니

다. 만일 내일이 있다면, 주님, 제 마음에 기름을 부어 주소서. 아버지, 제가 다른 사람들을 당신께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제 힘이 닿는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제게 더욱 크게 기름부어 주옵소서.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140 저는 그 날 성전 안에 있던 이사야처럼 느낍니다, 이사야는 천사들이 얼굴과 발은 날개로 가리고, 날면서, “거룩, 거룩, 거룩하시도다!”하고 외치는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오, 그 젊은 선지자는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는 좀 늙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보았을 때, 비록 환상을 보았어도, 그는, “나여 화로다!”하고 외쳤습니다.

아버지, 며칠 전 밤에 아니 며칠 전 아침에 그들 천사를 보았을 때, 어쩌면 저는 좀 그렇게 느꼈습니다. 나여 화로다, 저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를 깨끗케 하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저를 보내소서,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간에. 저는 여기 강단에 삼십 년 동안 서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제게 시키실 일이 있다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 보시기에 은혜를 입게 하소서. 겸손하게, 기도하나이다.

성령이 그들을 먹이도록, 감독하게 하신 작은 양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는 면에서, 저는 제가 아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행했습니다. 여러 해 전에, 그 환상에서, 그 커다란 커튼이 서부에 놓여 있고, 큰 생명의떡으로된 산이 있었습니다; 그 소책자, “내가 하늘의 환상에 불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그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면전에서 계시되었습니다.

141 당신은 하나님이고,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는 제 모든 불신과, 제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간구합니다.

오늘밤 제 앞에 있는 이 작은 교회와 같이 오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건물에서 나갑니다, 휴거하면서, “우리 모두 하늘에 속한 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이 행하시고 일을 보고서, 당신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것을 보고, 여러 번 훈훈해졌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밤, 저는 아주 지쳐 있습니다. 나여 화로다! 야곱의, 야곱은 그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이곳은 두려운 곳이다, 다름아닌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서 뽀얗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게 너무도 기쁜 일일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 인간이 위대하고 강력한 하늘의 존재 앞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얼마나 지치게 만들고,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요.

저는 당신이 저를 보내셔서 이끌고 인도하게 하신, 여기 있는 저의 작은 교회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환상들과 꿈들과 그런 것들이 말한 그대로 행했습니다. 주님, 저는 그들을위하여 제가 아는 방법을 다해 음식을 다 들여다 놓았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든지 간에, 주님, 우리는 당신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당신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인생이 끝나고나면,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들어올려 영접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2 여러분 모두다, 여러분 모두 마음을 깨끗케 하십시오. 모든 것을, 모든 무거운 것을 없애버리고; 그것을 치워버리십시오. 어떤 일도 여러분을 괴롭히게 놔두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겁낼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것은 아주... 그것은 전 세계가 신음하며 위해서 외치는 순간입니다. 만일 그 일이 뭔가가 터져나오는 것이라면, 새롭게 오는, 새로운 은사나 무엇인가가 새롭게 오는 것이라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만일 그 일이 일곱 우뢰의 계시가 교회에 계시될 때가 오는 때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지, 전 모릅니다. 저는 제가 본 것을 설명했을 뿐입니다.

오, 세상에,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진지하고 엄숙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그것이 제가 가야할 때라고 한다면, 저는 당신의...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끝마치셨을 때,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어느 곳이든, 어떤 때이든,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제가 떠나기를 바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부양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에 따라, 제 뜻이 아니라. 그건 주님의 뜻을 따라서입니다. 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인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본 것과 일어났던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선생님들, 이것이 종말일까요? 아!

143 그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꿈을 꾸셨던 여섯 분. 꿈이 일곱 가지가 아니었음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섯 개가 연달아 있었고, 그 다음에는 곧바로 그 환상이 있었다는 것이 아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계신, 잭슨형제님이 한 분이셨고; 파넬형제님도 한 분이셨고; 칼린스자매님도 한 분이셨고; 스테피자매님도 한 분이셨고; 로버슨형제님도 한 분이셨고; 빌러형제님도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아십니다, 그것에 관한 꿈이 하나더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의 끝에서, 일곱번째로...스테피자매님 꿈 뒤에, 곧바로 환상이 터졌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왜 떠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왜 가야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전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저에게 주목하지 마십시오, 저는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모든 사람처럼 죽어야만 합니다. 제 말을 듣지 마십시오, 제가 말한 것을 들으십시오. 제가 말한 것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전한 사자에게 주목하지 마십시오; 메시지를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메시지를 보시고, 메시지를 전한 사자를 보지 마십시오. 그것이 말한 것, 그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가 제 기도입니다.

144 저는 와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에게 아무 일이라도 감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제가 아는 한, 제 말 좀 들어 보십시오. 제가 아는 한, 저는 이삼 일 후에는, 수요일 아침에, 투산을 향해 떠날 것입니다. 저는 투산에 설교하러 가는게 아닙니다. 저는 거기에 설교하러 가는게 아닙니다. 저는 투산에 갑니다, 가족들을 학교에도보내고, 그리고나서는 방랑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그저 짧은 메시지를 전할 좀 짧은 집회를 열기 위해서, 피닉스에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쩌면, 제가... 저는 그들이 그 집회에서 하루 밤 설교를 하라고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기에 올 거라고만 말했습니다. 아시겠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쉬케리언형제님에게 드릴 말씀, 주께서 가라사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아. 저는 그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건 그에게 달렸습니다.

145 여러분지난 호 보이시지를 보셨습니까? 그건 조직이어서는 안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신조를 선포했습니다. 조직, 그러면 저는 빠질 것입니다. 저는 그런 데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잠정적으로, 아겐브라이트형제님과 일곱 명의 대통령 아래서 워싱턴 외교관으로 있었던 롤형제님은 아프리카에 가야 합니다. 롤형제님과 저, 그리고 아겐브라이트형제님은 거기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탄자니카에서, 보제형제님과 함께 집회를 열기 위해서, 곧 아프리카에 가야할 것입니다. 그 아래로 내려가, 아니면 위로 오스트렐리아를 거쳐서, 그 길을 거쳐서,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이 뭔가 다른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기 전에, 저는 여기에 돌아올 것입니다.

다음에, 제가 거기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저게 달리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면, 저는 가족들을 데리고 알래스카주 앵커리지로 이사할 것입니다. 이곳은 남서쪽입니다; 그곳은 북서쪽일 것입니다. 그리고나서 그들이 거기서 여름 동안 지내게 할 겁니다, 투산에서는 껌질이 벗겨질 정도로 태양열이 따갑고 덥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이 그 기후를 견디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향수병에 걸리고 낙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집을 팔지 않습니다. 집에 가구도 두고 가고, 거기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릅니다.

146 그때, 여름철이 끝날 때가 되면, 주님의 뜻이라면, 저는 알래스카를 떠나, 그리고 덴버쯤에 내려가고 싶습니다, 중서부죠; 남서부, 북서부, 중서부, “오 주님, 제게 무슨 일을 시키시렵니까?”라고 외치면서.

그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설교되어야할 모든 메시지는 바로 여기, 이 성막에서 전해질 것입니다. 여기서 테이프를 녹음할 것입니다. 여기가 본부가 될 곳입니다.저는 서부에서 가족과 함께 머물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는 일을 발견할 때까지 찾을 것입니다.

만일 올 해로 결정이 나지 않으면, 다음 해에, 물이나 음식도 없이, 저는 사막으로 걸어 들어가, 하나님이 절 부르실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는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절실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뜻을 모른다면 어떻게 그 뜻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환상이, “여러분이 행한 일”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찾고 다닙니다. 아시겠죠? 그 부름이 올 때까지,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도하며 다닐 겁니다.

우리가 그 모퉁이돌을 놓을 때, 그 첫번째 환상을 기억하십니까? “전도인의 일을 해라,”고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전도사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전도인의 일을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뭔가 다른 일, 어떤 일의 변화가 올 때까지 말입니다. 뭔가 다른 일일지도 모릅니다; 전 모릅니다.

147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회중이 “아멘”한다—주] 그것을 꼭 확실히 하십시오. 그것을 정말로 확실히 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들은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오, 주님, 가르치소서, 주님,
기다리도록 가르치소서.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러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내일 밤에는... 저는 그것을 충분히 명확하게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회중이 “아멘”한다—주] 제가 아는 방법을 동원해서 분명하게, 그게 제가 하는 전부입니다. 그게 제가 말할 것으로 아는 전부입니다. 그게 제게 계시된다면, 어떤 것에 대해서, 저는 재빨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알고 싶어 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저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저는 어디—제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저-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저-저는 그저... 제가 하는 한 가지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갈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제가 거기에 가면, 어쩌면 말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할 일은, 가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이 주일도 있지 않고, 어떤 다른 곳에 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기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환상에는 아내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일은 어땠느냐하면, 저는 포장 마차 안에 있었고, 제가 그리로 걸어 들어가자마자, 거기에...저는 제 스테이션 웨건 차에 있었습니다.

며칠 후,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거기에 이르면 월 해야 할지도모르면서, 그렇게 떠날 것입니다; 그저 가는 겁니다

다.

148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일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어디 가시죠?”

“그건 네 알 바 아니다. 그저 계속 가거라.”

“주님, 제가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시죠?”

“그건 네 알 바 아니다. 너는, 나를 따라 오너라.” 아-아. 아-아. “그저 계속해서 걸어가라.”

“어디서 멈출까요?”

“그게 네게 무슨 상관이나? 그저 계속해서 걸어가라.”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갑니다. 아-아. 아멘.

주를 사랑해, 주를 사랑해

날 먼저 사랑하셨으니

내 구원을 사셨으니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주는 제 생명입니다), 주...

(제가 위하는 모든 것)

날 먼저 사랑하셨으니

내 구원을 사셨으니

갈보리 십자가에서.

선생님들, 이게 그 때일까요? [브래넘형제와 회중이 함께 주를 사랑해를 모두 콧노래로 부른다—주] 그것을 다시 부르면서, 옆에 있는 사람과 악수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십시오, “형제님, 자매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www.messagehub.info

설교자

윌리엄 메리언 브래넘

...소리를 내는 날들에... 계시록, 10:7